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07. 30(수),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김학범, 류제현, 박양우,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은희,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황재하, 이재근  
김 원, 양경모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친환경 전력공급시스템 설치	공개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공개
3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공개
4	「영월 선돌, 영월 문곡리의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 국도31호선(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공개
5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6	「하늘다람쥐」 생태학적 특성 등 연구를 위한 포획	공개
7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8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	공개
9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0	「평창 백룡동굴」 일일 관람인원 확대	공개
11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내 관광객 쉼터 건축	공개
12	「괴산 화양구곡」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공개
13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공개
14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건립	공개

## 【검토사항】

15	「제천 용하구곡」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공개
----	----------------------------	----

## 【보고사항】

16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공개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심의사항】

천기 2014-07-01

### 1.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전력공급시스템 설치

####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전력공급 시스템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014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14.6.25.) 결과 보류 후 신청인의 설명 등을 통해 재심의하기로 한 안건임.
-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등을 통한 전력공급시스템 개선 필요성 및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 후 설명을 통해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사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일원
  - 지정일 : 1982.11.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독도 전력공급시스템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 일원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 설치(16.8kWp) : 태양광 판넬 설치(84장, 126㎡)
      - 경비대 앞 : (용량) 5.2kWp, (수량) 200W×26장, (설치면적) 39㎡
      - 삭도건물 앞 : (용량) 4.4kWp, (수량) 200W×22장, (설치면적) 33㎡
      - 삭도건물 : (용량) 2.4kWp, (수량) 200W×12장, (설치면적) 18㎡
      - 태양광구조물 앞면 : (용량) 4.8kWp, (수량) 200W×24장, (설치면적) 36㎡
    - 풍력 발전 설치(2.4kW) : (발전기크기) 0.64m×0.48m, (날개직경) 3.72m
    - 전력저장장치 교체(축전지실) : 연축전지(0.66MWh) → 리튬이온(1MWh)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친환경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본 건물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시스템을 설치코자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력공급설비에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고, 노후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운전시스템을 자동화 하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이 사업은 크게 4가지로 ① 기존 건물벽 및 축대벽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② 풍력발전 신설, ③전력저장장치 증설,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교체임. 아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①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존 건물벽 및 축대벽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잉여자산 활용이라는 점에서 수긍되나,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는 독도를 생활 거점으로 하는 조류는 물론 식물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반사 도료를 분사한 태양광 패널을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경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풍력발전은 소음이 적고 경량의 소형이라 하여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저주파는 피할 수 없는 산물이라는 점과 함께 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돛형 외장커버를 하는 형태는 결국 직접적인 조류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는 경관을 해하는 시설로 판단됨.
  - ③ 전력저장장치는 기존 시설의 교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축전지에 비하여 리튬이온전지가 장점이 많지만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될 것이며, 일정 시간 사용 후 폐기 시 폐기물 처리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
  -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교체는 독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요로 보임.

<\*\*\* 문화재위원>

-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변에서 서식 및 번식하는 조류를 고려하여 벽면에 설치 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태양광 모듈에서의 빛 반사는 조류의 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빛 흡수기술이 적용된 빛 반사 없는 모듈을 사용해야 함
- 풍력발전시설은 외부에 망을 씌워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계획 하였으나, 설치 높이는 물론 건물 옥상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이 조류의 서식 및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세계적으로 조류의 집단번식지 인근에는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금지 하고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국립해양조사원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정일 : 1965.4.7.

(3) 신청내용

- 사업명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고서(홍도 최외곽 간조노출지)
- 사업내용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2개소)
  - 침성대 형태 : 높이 9.17m, 밑지름 5m, 윗지름 3m, 강관 및 콘크리트
  - 관측 제어설비 : 조위·기상·정밀위치 관측, 위험표시등 등, 태양광 발전설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서쪽 최외곽 도서의 간조노출지에 영해(직선)기점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첨성대 모양의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본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는 한·중, 한·일 해양경계 협정에 대비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주변국가간 해양영토분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국가적 중요사업이라 인정됨
- 2014~2017년까지 22개 기점에 설치되는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중 홍도 2개소는 2014년에 설치되며, 북위34도 43분으로 홍도 본도에서 서쪽 작은 섬에 해당됨
- 그러나 이 지점은 주변에 독립문바위 등이 함께 어우러진 중요한 경관적 요소를 간직한 곳이나 이러한 거대한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영해기점 영구시설물은 국가적 중요 사업이라지만 시설물의 위치, 규모, 수량 조정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3.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 가. 제안사항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주변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시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외
  - 지정일 : 2004.04.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심곡리 인근 연안
  - 시설규모
    - 탐방로 : 3.0km(테크보행교, 해상교량 1개소, 전망대)

항목	수량	주요내용
탐방로	테크보행교	· 목재 및 강재(파랑내습구간) 데크
	해상교량보행교	1개소 · 해안절벽 및 군부대 경계부지에 따른 탐방로 보행단절구간을 해상으로 우회 통과
	콘크리트 보도	· 기존 군 경계순찰로(콘크리트 포장)를 정지 및 보강포장
	전망대	· 쉼터 및 안보 교육장
	출입관리소	2개소 · 심곡항 및 정동항에 각 1개소 · 탐방로를 주간은 관광객 이용, 야간은 군 경계로로 인계
기타부대공식	1	·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전기시설 · 폐초소 철거 및 군부대 감시장비 신설 · 낙석구간 낙석방지막 · 안전난간 및 해안단구 지질학습 안내판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6. 9월
- 총사업비 : 약 70억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밖

라. 검토의견(\*\*\*\*\*)

- 해안단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상교량 등은 해안단구 및 주변 해역의 경관과의 조화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3.20)

<\*\*\* 위원장, \*\*\* 문화재위원, \*\*\* 강원대학교 교수>

- 정동진항 측 해상교량구간은 바다조망을 고려하여 교량계획을 지양하고 군부대 및 민간(토지소유주) 측과 협의하여 군부대 경계로와 기존 산책로를 이용한 육로계획 필요
- 탐방로 개설 시 전망대 설치 필요
- 지질에 대한 설명내용을 수록한 안내표지판 등을 작성하여 이용객들의 학습효과 및 궁금증을 유발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 필요
- 심곡항 측 교량구간은 기존 군 경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낙석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나 기존 사면의 위험구간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자료(\*\*\*\* \*\*)

<\*\*\*>

- 해안 탐방로 조성을 통해 해안단구 지질구조 발달과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 트레킹 랜드마크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체험이 가능한 생태관광 교육 공간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하고자 함.

사. 의결사항 : 부결

#### 4. 「영월 선돌, 영월 문곡리의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 국도31호선(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 가. 제안사항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 국도 31호선(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 국도 31호선(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번지 일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10. 2000. 3. 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7 일원, 북면 문곡리 345-6 일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 영월군 북면 언덕리)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도31호선 중 강원도 영월군 방절리~북면 언덕리 구간은 기존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우회도로 건설 및 선형 개량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행 안전성 확보
    - 연 장 : L=11.2km(우회도로 4.3km, 기존도로 개량 7.9km)
    - 폭 원 : B=10.5m(양방향 2차로)
    - 교 량 : 10개소 / 1.286m(장대교 4개소/980m, 소교량 6개소/306m)
    - 터 널 : 1개소 / 960m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6. 5.
- (4) 문화재와의 거리
  - 영월선돌(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380m 이격, 허용기준 1구역)
  - 영월문곡리의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120m, 허용기준 1구역)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영월 선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에서의 도로공사로,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마. 참고자료 (\*\*\*\* \*\*)

### <\*\*\* 문화재위원>

-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는 천연기념물 제413호(2000.03.16.)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명승 제76호(2011.06.10.) ‘영월 선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통과하게 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천연기념물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지역은 기존의 도로를 따라 약간의 선형이 변경되는 사업으로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명승 ‘영월 선돌’ 지역에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현재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과 더불어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야 함.
- 명승 ‘영월 선돌’은 선돌 자체가 명승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돌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현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전체가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로서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통과하게 되며, 현상변경 허가기준상으로는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천연기념물 및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의 경우 경관을 중요시해야 하는 대상임으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공사 중 천연기념물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경우 도로상 선형 변경만 일어나는 것임으로 경관상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중 명승 ‘영월 선돌’의 경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쪽 지역에 노선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도로 노선을 외곽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 명승 제76호(선돌) 관련 선돌 전망대 및 주변에서 선돌 및 주변 환경을 바라볼 경우 도로 및 교량 등이 경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됨.
- 전면 섬과 같은 지형에 도로가 개설되어 자연환경이 분절되고, 자연환경에 인공적 요소(도로 및 교량)의 삽입에 따른 경관 저해.
- 특히 교량은 영월방향 마을 강둑보다 약 10m 이상 상부에 설치되고 시각적으로 가깝게 보여 경관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천연기념물 제413호(스트로마톨라이트) 관련 도로 개량은 조사 결과 경관 등 관련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천연기념물 제413호 관련 구간은 제시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명승 제76호 부분은 제시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경관에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안을 검토 및 설계하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부결

## 5.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등,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등

○ 지정일 : 1975. 2. 21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외 1필지

○ 사업목적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함.

○ 사업내용

지번	지목	지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 최고높이
*-**-**	답	148㎡	84.51㎡	84.51㎡	1층 / 5.4m
*-**-**	답	1,211㎡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8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41m 이격(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기존의 가설건축물(농사용 컨테이너)을 철거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곳으로 지정구역으로부터 41m이격되어 있으며, 재두루미 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새도래지의 영향에 미치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 2014.7.24)

<\*\*\* 교수>

- 문화재보호지역 중 1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보호지역 접경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100m내에는 건축물 등 신축불허 지역임.
- 단독주택을 신축코자 신청한 상기위치는 문화재보호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약 41m로 한강하류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6. 「하늘다람쥐」 생태학적 특성 등 연구를 위한 포획)

### 가. 제안사항

「하늘다람쥐」의 생태적 특성 등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하늘다람쥐」의 생태적 특성, 행동권,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현상변경(포획) 신청하는 것으로 불허 처분에 대하여 재신청 하는 사항임
- 경과
  - '14년 3월 포획 신청
  - '14년 4월 신청서류(연구계획서) 보완
  - '14년 5월 불허처분[천연기념물과-2581(2014.5.23.)]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서울대학교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 328호 하늘다람쥐
  - 소재지 : 전국일원
  - 지정일 : 1982. 11. 16.
- (3) 신청내용
  - 개요 : 하늘다람쥐의 전반적 전반적 생태, 이동, 서식지 이용, 서식지 모델링, 생태계 상호작용 특성 등을 파악하여 하늘다람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서식지 요구조건을 모색하고자 함
  - 포획방법 : 하늘다람쥐용 덫을 이용한 포획(발신기 부착 후 즉시 방사)

○ 포획장소 및 수량 : 총 20개체

		성체	새끼	계
원주 백운산	암컷	3	2	5
	수컷	3	2	5
대전 보문산	암컷	3	2	5
	수컷	3	2	5
계		12	8	20

※ 기 신청 수량 : 총 36개체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 18개체
- 강원도 원주시 백운산 18개체

○ 포획기간 : 허가일 ~ 2016년 9월

## 라. 검토의견

(1) \*\*\*\*\*

- 하늘다람쥐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과 보호로 개체수가 증가하였다고 추정되지만 구체적이고 공식적이며 신뢰성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 환경부가 '97년~'04년 조사한 결과 전국 119곳에서 확인된 것에 비하여 '06년~'10년 총 213곳에서 확인(환경복원기술학회지 17권 1호 111-122, 2014년)되었으나 이는 조사방법의 단순한 차이, 이중집계 및 관찰시기 등에 의한 차이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원주 백운산에 100마리 이상, 대전 보문산에 60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

- '09년 환경부의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에 의하면 대전 일대에서 1곳, 원주 백운산에서 1곳에서 관찰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 하늘다람쥐가 서식 할 개연성은 있으나 연구대상 지역과 거리가 있고, 이 결과는 목격, 청문, 흔적으로 서식 여부만을 밝힌 단편조사라는 점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60~100마리가 서식한다고 추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 신청인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야생동물 실태조사가 하늘다람쥐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고 외국 학자의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나, 하늘다람쥐의 배설 습성과 조사기법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 이를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 22권 6호 569-579, 2013년)
- '10년 Treves 등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야생동물의 행동과 생태연구는 해당 동물 서식에 교란을 주지 않으며,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점도 일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Biological CONSERVATION 143권 2호 521-528, 2010년)
-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최초 신청에 대한 불허 의견을 수정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 문화재 전문위원

- 지난번 신청 건에 비해 신청 수량이 줄었으나 20개체 역시 결코 적은 수량은 아니며 2년 동안의 포획연구기간을 일시에 허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우선 1년간의 포획연구를 허가 한 후, 1차년도 포획연구 추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2년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7.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내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원
  - 지정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산\*\*\*-\*번지
  -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신축 \*대지면적 1,584㎡
    - (건물신축) 건축면적 312.9㎡, 연면적 294㎡, 높이 7.08m, 철근콘크리트조
    - (조경식재) 은행 4, 동백 12, 쥐똥·자금우 18, 눈향·돈나무 22주, (콘크리트 포장)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
    - (건축물 공사) 건축물 2층 이하 - 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 (토지·임야 형질변경)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공사 규모 이내의 사업이나 임야 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8.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

###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원
  - 지정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외 3필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지상1층, 높이 4.92m, 건축면적 56.79㎡, 철근콘크리트조
    - (진입로) 폭6m, 도로길이 174m, 도로면적 1,168㎡, 마사토포장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사업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10.1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중 세계 자연유산지구 외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기존 건축물 재·개축 허용)에 해당함
- 주택 신축은 허용기준에 위반되며, 신축 예정지 주변의 반경 수백 m 이내에는 주택이 거의 없어 신축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9.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소매점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번지 일원
  - 지정일 : 1993.8.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
  -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지상1층, 높이 4.2m, 건축면적 41.85㎡, 경량철골구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1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14.7.24.)

###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역(기존주택 개축, 재축 허용)에 해당됨.
- 허가기준 제1구역에 속하는 소매점 신축 예정지의 북쪽에서는 신축(주택 2층)이 불허된 바 있으며(2013.12.23.), 남쪽에서는 신축(주택 2층)이 허용된 바 있어(2013.03.29.), 형평성 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됨.
- 그러나 신청지 인근(색달동 2428)에 있는 신청자 소유의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 제주대학교 교수>

- 신축 예정 부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제연 난대림 지대에 인접한 장소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써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하여야 할 지역임.
- 개인소유의 부지로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여 소득증대를 희망하는 바이나, 기존의 동일 소유자의 농가 창고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새로이 소매점을 신축할 경우에 건축물이 도로변 80~90%를 점유하게 되어 급속한 도시화가 불가피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서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농가 창고를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창고와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10. 「평창 백룡동굴」 일일 관람인원 확대

### 가. 제안사항

「평창 백룡동굴」의 일일 관람인원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평창 백룡동굴」 일일 관람인원 확대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평창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 지정일 : 1979.02.10

(3) 신청내용

- 사업명 : 평창 백룡동굴 일일 관람인원 확대

- 추진배경

- 2013년 5월 백룡동굴에 대한 개방활용기간 연장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시 1일 180명의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조건부로 허가하였으나, 성수기에 집중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동굴의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11년~2013년 동굴내부 환경모니터링 결과 소폭의 관람인원 증가가 동굴 내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1일 관람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1일 관람인원을 9회, 180명 → 12회 240명으로 확대

- ※ 1회 동시 관람인원 20명은 유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백룡동굴의 공개관람 결정 이후 동굴 내부의 환경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 관람객에 의한 내부 환경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굴 내부에 자동환경측정장치를 설치하였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가이드 숫자의 확보를 통해 성수기 관람객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동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모니터링 결과 및 의견 요약)**

- 백룡동굴 내부의 온·습도 변화는 관람객에 의한 영향보다는 외부의 계절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성수기 최대 농도가 1,000ppm 정도로 동굴생성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2,400ppm 이하로 유지됨
- 또한 백룡동굴은 국내 공개 천연동굴로는 유일하게 매주 월요일 휴관함에 따라 자연적 정화작용에 의해 내부환경이 회복되므로 적절한 가이드 숫자가 확보되어 관람객을 통제한다면 1일 최대 240명의 관람인원은 동굴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라. 참고자료(\*\*\*\*\*)**

- 현재 실시 중인 환경모니터링 영향 결과 관람객의 입출입에 따른 환경 변화 요인이 거의 없음으로 백룡동굴의 관람객 인원을 증가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단 관람인원 증가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다시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1.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관광객 쉼터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관광객 쉼터)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관광객 쉼터)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014년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해 건축 위치 및 건물 외관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 지정일 : 2011.01.13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안덕면 사계리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비해 관광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광쉼터를 제공하여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여 재방문에 기여하고자 함
- 관광객 쉼터의 용도는 관광객, 특히 올레꾼들을 위한 음료수(정수기), 휴대폰 급속충전, 관광안내홍보책자 비치, 컴퓨터 등을 설치 및 관광 가이드 쉼터 제공 등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여 제주 관광의 이미지 고취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공부상-4,531.0㎡ / 신청-744.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3.0㎡
- 건축규모 : 지상 1층(4.15m)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문화재 보존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7.24)**

**<\*\*\* 문화재위원>**

- ①사업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제528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지정구역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1호 ‘산방연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연관되어 있음.
- ②사무소 신축은 2014.03.26. 경관훼손의 우려로 부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는 같은 지번 내에서 위치를 바꾸어 신청한 내용임.
- ③사무소 신축예정지는 향후 우선 매입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지역이며, 사무소가 신축되면 용머리 경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고, 차후 유사한 신축 신청이 있을 경우 형평성 문제로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 함.

**바. 참고자료(\*\*\*\*\*)**

- 본 신청 건은 동일 지번 내 신청부지 북측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3. 26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어 통보(천연기념물과-1529, 2014. 3.31)된 바 있음. 금회 건축위치를 남측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사. 의결사항 : 부결**

## 12. 「괴산 화양구곡」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 가. 제안사항

「괴산 화양구곡」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괴산 화양구곡」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심의 사항임.
- 추진경과
  - 2014. 4.22 충청북도 명승 지정 신청
  - 2014. 5. 7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014. 5.28 문화재위원회 명승 지정 검토
  - 2014. 6.13~7.13 지정예고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괴산군수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괴산 화양구곡(槐山 華陽九曲)
-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종별 : 명승
- 면적 : 30,282m<sup>2</sup>
- 문화재 가치
  -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이며, 구곡을 설정한 시기는 송시열선생 사후 선생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1641~1721) 선생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후 단암 민진원(1664~1736)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함.
  -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을 모신 화양서원과 관련된 명승지로 조선시대 선비들과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국을 논하고 학문을 토론하면서 구곡의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짓곤 하던 장소이며 화양동의 경치를 읊은 많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음.
- ※ 화양구곡 내 문화재 현황
  - 괴산 송시열 유적(사적 제417호)
  - 괴산 채운암 대응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0호)
  - 만동묘정비(충청북도 기념물 제25호)
  - 화양서원 묘정비(충청북도 기념물 제197호)

### (3) 문화재현황

#### □ 유래와 전설

-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이다. 구곡을 설정한 시기는 송시열선생 사후 선생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1641~1721) 선생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단암 민진원(1664~1736)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한다.

#### □ 자연환경

##### 1) 위치 및 지형

- 화양구곡은 괴산군 남쪽 속리산국립공원 내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양천을 중심으로 3km 거쳐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로 분포하고 있다.  
계곡을 중심으로 남쪽은 도명산(642m)과 가령산(642m)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사랑산(647m)이 위치하고 있다.  
화양천과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제1곡 경천벽 부근은 다른 지점보다 경사도가 완만하다.
- 화양구곡이 속해 있는 속리산국립공원은 1970년 3월 24일에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화양계곡은 포함되지 않았다가 1984년 국립공원이었던 화양계곡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다. 화양구곡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속리산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 2) 지질

- 화양구곡이 위치한 부근은 반상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계곡부를 따라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점토, 모래층이 분포하고 있다.
- 국내에 구곡이 분포하는 지역의 기반암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화양구곡 역시 화강암을 기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양천의 남쪽은 암석 노출지가 나타난다. 암석이 50%이상으로 노출된 지역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험준한 산악 및 산악의 정상부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 3) 수계

- 화양구곡이 위치한 화양천은 대야산(931m)과 청화산(984m) 자락에 발원하여 제1곡 경천벽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에서 박대천과 합류하여 달천을 이룬다. 화양천은 주변에 위치한 산에서 계곡부를 따라 작은 냇물들이 합류하고 있으며 중간에 낙폭이 큰 구간부터 수면이 넓게 펼쳐져 유속이 느린 구간까지 다양한 구간들이 존재한다.

#### 4) 토양

- 화양구곡의 주변을 이루는 산악지는 산성암을 모재로 하며 토성은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화양천변 일부만 양토로 구성되어 있다. 화양천변과 산지에서 천으로 이어지는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표토가 침식되어 있는 상태로 천변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낮아지고 있다.

#### 5) 식생

- 화양구곡 일원은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한 별도관리지역으로 소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 □ 역사문화환경

#### 1) 역사적 배경

- 화양구곡이 위치한 청천면은 본래 청주목의 속현인 청천현이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청천현은 본래 살매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청천현이라 고쳐 부른 후 고려 때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적고 있다.
- 화양리는 황양목이 많아 황양동이라 하였는데 효종 때 우암 송시열이 화양동으로 고쳐 화양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 화양구곡은 조선의 유교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화유산으로 괴산지역에 괴산·청안·연풍 등 3곳에 향교가 있어 각기 독립 군.현으로 자리했으며, 또한 청안에는 사마소(司馬所)가 있다. 사마소는 진사·생원시에 입격한 인물이 50인을 넘어서는 군.현에 세운 것으로 청안 지역 사족의 위세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 국가에서 세운 향교와 달리 서원은 재지 사림들이 건립하고 국가가 사액 등을 통해 지원하던 강학·재향 공간이다.
- 괴산지역에는 송시열을 배향한 화양서원과 이황·이문건 등 여러 인물들을 두루 제향하던 화암서원이 대표적이다. 또 제향 기능만 가진 사우가 있어 괴산지역의 여러 문중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 2) 화양구곡 내에 위치한 문화유적

- 괴산 송시열 유적(사적 제417호) : 괴산 송시열 유적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인 송시열과 관련된 유적으로 만동묘, 화양서원, 암서재 등이 위치한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지역과 송시열 무덤 및 신도비가 위치한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화양서원은 송시열이 잠시 머물렀던 장소에 세워진 서원으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장

소이다. 만동묘의 자리는 중국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던 곳이다. 만동묘 주변에는 송시열과 관련된 암서재, 하마비, 읍궁암 등이 있으며, 근처의 암벽에 송시열의 사상을 담은 암각자들이 새겨져 있다. 송시열 묘소는 원래 수원 무봉산에 있던 것을 1697년(숙종 23) 지금의 청천면 청천리로 옮긴 것이다. 묘소 앞에는 묘비 2기와 문인석·망주석 1조를 갖추었다. 괴산 송시열 유적은 송시열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정신이 깃든 곳일 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로서, 한때는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던 곳이다.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교육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곳이다.

- 괴산 채운암 대웅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0호): 채운암은 1277년(충렬왕 3) 도일선사가 세운 암자로 1619년(광해군 2) 혜식선사가 고쳐 지으면서 채운암이라 하였다. 1655년(효종 4)에는 혜일선사가 지금의 자리에 옥장사를 지었으나 구한말 왜병의 침입으로 대부분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1948년 대홍수로 채운암이 파괴되었다. 1949년에 남아 있는 요사채의 일부를 지금 있는 자리에 옮겨 채운암이라 부르고 있다. 채운암 대웅전의 안쪽에는 목조여래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을 모시고 있다.
- 만동묘정비(충청북도 기념물 제25호) : 만동묘정비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중국 명나라의 임금인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에 자리잡고 있다. 만동묘는 우암 송시열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제자 수암 권상하가 명나라 의종이 죽은 지 60년이 지난 1704년(숙종 30)에 지은 것이다. 비의 형태는 연꽃무늬를 새긴 바닥돌 위에 네모난 받침돌을 놓고, 그 위로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 비문은 일본인들이 고의로 글자 획들을 쪼아 놓아 알아보기가 힘들다. 1747년(영조 23)에 세웠으며, 이재가 글을 짓고, 유척기가 글씨를 썼다.
- 화양서원 묘정비(충청북도 기념물 제197호) : 묘정비는 서원 앞에 세워 서원의 건립취지와 그 서원의 주인·모시는 인물에 대한 문장 등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이 비는 우암 송시열 선생을 모신 화양서원의 자리에 놓여 있다. 화양서원은 1696년(숙종 22)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제향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창건되던 해에 현판을 하사받아 1716년(숙종 42) 어필로 현판을 달았다.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원이었으나, 그릇된 세금징수로 심한 민폐를 끼쳐 1858년(철종 9)에 폐쇄되고, 논란 속에 1870년(고종 70) 건물이 헐리었다. 비는 네모반듯한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뒤 지붕돌을 올린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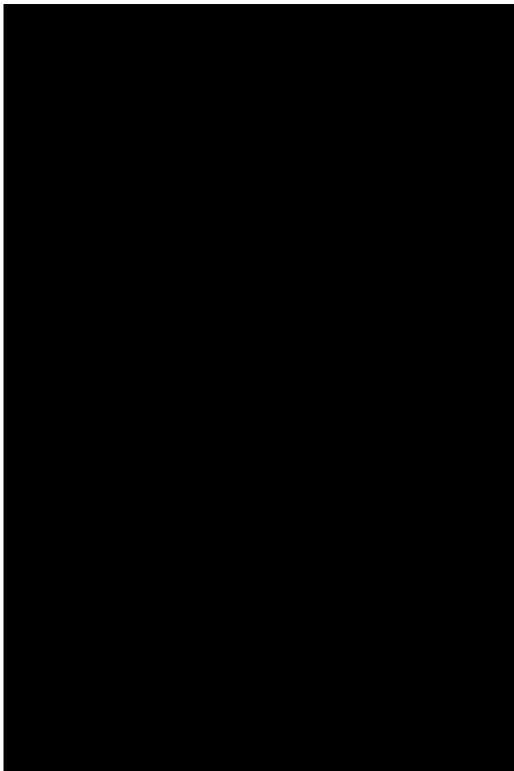
1716년(숙종 42)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윤봉구가 지었다. 서원이 헐리면서 땅속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광복 후에 다시 찾아 세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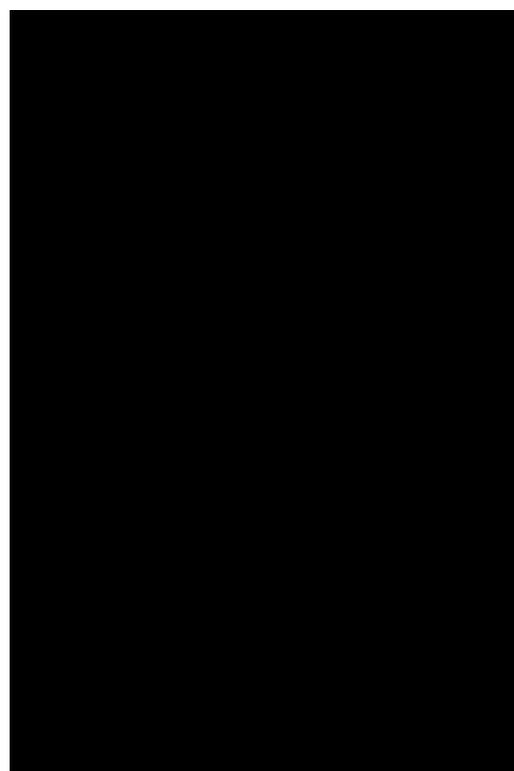
괴산 송시열 유적



괴산 채운암 대웅전



만동묘정비



화양서원 묘정비

□ 화양구곡의 설정

- 화양구곡은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일찍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화양동은 파곳 아래쪽에 있는데, 파곳 물이 여기 와서 더욱 커지고 돌도 또한 더욱 기이하다(華陽洞在葩串之下葩串之水至此益大石亦益奇)”라고 하였으며, “푸른 물의 숙덕거림은 성낸 것 같고, 푸른 산의 잠잠함은 쩡그리는 것 같다(綠水喧如怒, 靑山默似嘖)”라는 시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 화양구곡의 주요 경관은 각 곡의 중심이 되는 경물(바위, 소(沼), 절벽 등)



<표> 화양구곡 현황 종합분석

곡	구분	내용
1곡 경천벽	지형	· 수직, 수평절리에 의해 쌓여진 암괴
	경관	· 절벽과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경관 · 도로변 조망대
	식생	· 소나무 외 참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주로 군락을 이룸 · 탐방로 주변 인위적 가로수 배치(교목, 관목, 떨기나무 등)
2곡 운영담	지형	· 수직, 수평절리에 의해 쌓여진 암괴 · 깊고 넓은 못
	경관	· 절벽과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경관 · 수변경관(모래사장) · 도로변 조망대, 음식점 및 기타상업시설
	식생	· 소나무 외 참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주로 군락을 이룸 · 탐방로 주변 인공식생림 조림(소나무, 단풍나무, 은사시나무, 느티나무)
3곡 읍궁암	지형	· 하천에 의한 판상절리면 제거 · 회고 둥글넓적한 형태의 바위
	경관	· 화양서원 및 만동묘와 읍궁암 사이 공터 형성(읍궁암비) · 도로변에서 조망 불가능 · 음식점 및 기타상업시설
	식생	· 소나무 외 참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주로 군락을 이룸 · 탐방로 주변 인공식생림 조림(소나무, 단풍나무, 홍단풍, 느티나무, 대추나무)
4곡 금사담	지형	· 판상절리면이 하상면으로 나타남 · 판상절리면을 따라 대지가 형성
	경관	· 수변경관(좁은 모래사장 형성) · 층층이 쌓인 바위와 그 위에 형성된 암서재(인문+자연 경관) · 음식점 및 기타상업시설
	식생	· 탐방로 주변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조경 식재 · 암서재 주변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 식생 · 계곡 침수부에 갈대 갯버들 서식
5곡 첨성대	지형	· 판상절리에 따라 형성된 대상지형
	경관	· 계곡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형성된 바위 경관 ·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선 높게 솟은 윗부분만 조망 가능
	식생	· 상층부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중층부는 단풍나무, 병꽃나무. 하층부는 초화류 위주의 식생 · 첨성대로 이어지는 등산로 양측으로 은사시나무, 개웃나무 등 식생
6곡 능운대	지형	· 판상절리에 따라 형성된 독립적인 대상지형
	경관	· 독립적으로 형성된 누층 바위 · 족구장, 전선, 나무 등으로 인한 경관 저해 · 음식점 및 기타상업시설
	식생	· 능운대 주변 잣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조림. 후면으로 참나무 군락 · 탐방로 주변 인공식생림 조림
7곡 와룡암	지형	· 큰 바위가 하천에 의한 마식과 굴식작용을 받아 용의 형체를 이룸
	경관	· 도로변에 위치한 계곡 경관
	식생	· 하부쪽 소나무, 상부쪽 참나무, 버드나무 식생 · 계곡부 주변으로 갈대, 갯버들 서식, 돌틈으로 국수나무 자생 · 탐방로 주변 인공식생림 조림
8곡 학소대	지형	· 판상절리에 따라 형성된 독립적인 대상지형
	경관	· 층층이 쌓인 바위와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경관 · 수변 경관(깊고 넓은 못, 모래사장)
	식생	· 소나무와 참나무, 잣나무 군락 형성 · 탐방로 주변 벚나무, 단풍나무 식재
9곡 파곶	지형	· 판상절리가 수 차례 제거되면서 하상면을 이룸 · 시내 가운데 흰 바위가 넓고 편편하게 퍼져있음
	경관	· 깊은 계곡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에서 조망 불가능 · 너른바위와 계곡, 주변의 산세가 어우러진 경관
	식생	· 소나무, 참나무 군락 · 진입로 중간마다 느티나무 식생, 계곡부 주변 갈대 및 갯버들 서식



□ 관련 인물 - 송시열(宋時烈)

- 우암 송시열은 17세기 중·후반 조선 사회의 혼란함 가운데 강력한 국가 지도 이념을 구상하고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 학자 중 ‘자(子)’자를 붙인 유일한 인물로 역사상 가장 방대한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남겼다.
- 송시열은 은진(恩津) 송씨로 충남 회덕을 세거지로 하여 집성촌을 이룬 집안 출신이다. 외가가 있는 옥천 구룡촌에서 태어났지만 여덟 살 되는 해부터 회덕으로 가서 성장하였다. 송시열은 부친 송갑조로부터 주자와 율곡의 학문을 배웠으며 이 둘을 흠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 1625년(인조 3) 19세의 나이로 도사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 이씨와 혼인하였다. 1628년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1630년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율곡을 정통으로 계승한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했고, 이듬해 김장생이 죽자 그 아들 김집(金集)의 문하에 들어갔다.
- 1633년(인조 11) 27세의 나이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시제(試製)로 논술하여 생원시에 장원급제하였고,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송준길과 함께 영남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1635년 11월에 훗날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의 사부로 임명되었다. 이후 약 1년간에 걸친 사부생활은 효종과의 깊은 유대와 함께 북벌계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송시열이 화양동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찾은 것은 그의 나이 60세가 되는 1666년(현종 7)의 일이다. 『역주 화양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병오(1666)에 이르러 청주 청천의 침류정(枕流亭)을 빌어서 우거하였으며, 비로소 띠를 빼어 화양동에서 복거하였다. 이 뒤로부터 해마다 출입하기를 많이 하였다... 경신(1680)에 이르러 반초복을 하고 화양 또는 회덕에 많이 들어와서 거처하였으며... 병오 8월부터 동천에 거처를 마련하고 왕래하며 거주한 지가 23년이었으며, 무진 4월(1688)에 동천에서 나가 그 뒤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청천에 있었던 침류정(枕流亭)으로 거처를 삼았다가, 훗날 화양동 안쪽으로 옮겼다. 화양동에서의 우암의 삶은 검소함 그 자체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며 세상의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 우암은 69세가 되던 1674년(현종 15) 4월에 의종황제의 어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 4자를 화양동 벼랑의 돌에 모각(摸刻)하였다. 그리고 1689년 6월 8일 그의 나이 83세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했다. 운명을 예감했는지 사약 받기 직전인 5월 해남현(海南縣)에 도착했을 때, 문인 권상하에게 글을 써서 화양동에 신종황제·의종황제의 사당을 세우도록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화양동은 성역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 라. 검토의견

### <\*\*\*\* 의견>

-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尤庵 宋時烈(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이다. 구곡을 설정한 시기는 송시열 선생 사후 선생의 수제자인 遂菴 權尙夏(1641~1721) 선생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단암 민진원(1664~1736)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한다.
-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을 모신 화양서원과 관련된 명승지로 조선시대 선비들과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국을 논하고 학문을 토론하면서 구곡의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짓곤 하던 장소이며 화양동의 경치를 읊은 많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다.
- 1곡부터 구곡까지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곶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구곡문화를 대표하는 화양구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

-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尤庵 宋時烈(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이다. 구곡을 설정한 시기는 송시열 선생 사후 선생의 수제자인 遂菴 權尙夏(1641~1721) 선생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丹巖 閔鎭遠(1664~1736)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한다.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을 모신 화양서원과 관련된 명승지로 조선시대 선비들과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국을 논하고 학문을 토론하면서 구곡의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짓곤 하던 장소이며 화양동의 경치를 읊은 많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다. 1곡부터 구곡까지 擎天壁, 雲影潭, 泣弓巖, 金沙潭, 瞻星臺, 凌雲臺, 臥龍巖, 鶴巢臺, 巴串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곡문화를 대표하는 화양구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지정조사 의견('14.5.7)

##### <\*\*\* 문화재위원회>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괴산 화양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괴산 화양구곡은 17세기 중엽 우암 송시열이 경영한 구곡으로서, 조선시대 성행한 구곡문화를 대표하는 구곡경관임.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많은 수의 구곡이 존재하고 있으나, 구곡경관의 대부분은 그 일부 또는 전체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화양구곡은 제1곡 경천벽으로부터 제9곡 파곳에 이르기까지 구곡의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구곡경관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경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화양구곡의 중심에는 암서재가 위치하고 있고, 암서재 건너에는 사적 제41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양서원, 만동묘 등 괴산 송시열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화양구곡의 곳곳에는 구곡과 관련된 다수의 글씨가 각자되어 있어 문화경관 요소가 매우 풍부한 장소라 할 수 있음.
- 화양구곡은 조선시대 구곡문화를 대표하는 구곡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대상으로 판단됨.

#####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아홉 개의 구곡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구획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지정 후 정밀조사와 구곡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 Ⅲ. 종합의견

- 괴산 화양구곡은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회>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괴산 화양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번지 외 5필지로서 30,282㎡에 달하는데,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보존이 잘 된 편이다.
  - 화양구곡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1666년부터 머물던 곳에 설정된 구곡이다. 구곡의 설정은 수암 권상하(1641~1721) 선생에 의한 것이며, 단암 민진원(1664~1736) 선생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긴 까닭에 원형 확인이 용이하여 구곡에 대한 이론이 없는 편이다.
  - 화양구곡은 조선시대 명승지로서 많은 선비들과 시인묵객들이 찾아 구곡의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짓던 장소로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구곡이 있지만 1곡부터 구곡(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곶)까지 모두 비교적 원형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승적 경관적 가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원래 계곡을 중심으로 가시적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방안은 주민과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구곡 각 지점별로 상황에 맞도록 점적 지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Ⅱ. 보호·관리 방안 검토

- 1) 일단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2) 명승이 지정되고 나면 별도의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특히 와룡암의 경우 탐방로 개설에 따른 지형변화로 인해 물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를 연결시켜 원형적 경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Ⅲ. 종합의견

- 명승 지정을 위해 주민들과의 의견조율 문제로 많은 시간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우선 수렴안대로 지정하고 추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괴산 화양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화양구곡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의 수려한 계곡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경천벽, 금사담, 파곳 등 구곡을 설정하여 자연과 인문환경이 잘 어울리고 있으며, 우암 송시열이 머물던 계곡에 제자들이 화양서원을 세우고, 계곡에는 구곡을 설정하여 화양구곡이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음.
  - 계곡의 빼어난 자연경관, 조선 성리학과 연계한 구곡 설정의 절묘한 조화 등 우리나라의 구곡문화를 잘 살펴 볼 수 있는 곳으로 지정가치가 충분함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우선은 주변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지정구역은 구곡의 각 곡별로 점단위로 최소면적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확대지정토록 함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송시열 유적(사적 제 417호) 주변의 상가와 구곡의 주요지역은 매입하여 보존하고, 명승 지정 후 구곡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적극 활용

### III. 종합의견

- 수려한 경관과 당초 설정한 구곡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지정가치가 충분함, 다만 지정구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등은 괴산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바. 문화재 지정구역 : 6필지 30,282㎡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번지 외 5필지
- 지정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성명	주소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산14-3	임	4,210,778	3,611	*** 외 5인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
	456	천	481,939	25,741	국(건설부)	
	산13	임	1,154,780	691	*** 외 5인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414	전	3,458	90	대한불교조계종 채운암	
	415	전	1,088	143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
	417-1	전	2,558	6	대한불교조계종 채운암	
계	6 필지			30,282		
◇ 국·공유지 : 1필지 25,741㎡ (총면적의 85%)						
◇ 사유지 : 5필지 4,541㎡ (총면적의 15%)						



## 아. 참고자료(지정 예고기간 중 수렴의견)

<\*\*\* \*\*\*\*\*>

- 동 지역은 1984년 속리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명승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 반대
  - ‘괴산 화양구곡’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임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동지역에 2010년 계곡변 경관저해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2013년에는 화양구곡의 문화 및 지형·경관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구곡 주변 수목을 제거 및 정리한바 있음
  - 또한, 화양구곡 특화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 발간, 전망대 4개소와 해설안내판 9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연공원법의 엄정한 보호와 속리산국립공원의 대표 명소로서 국민들의 볼거리 충족과 자원가치 보전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명승’ 지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복설정과 관리기관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정 보호되므로 중복지정 불요
- ‘괴산 화양구곡’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984년 이래 속리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 특히,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고,
- 2010년 계곡변 경관저해 불법시설 철거와 2013년 수목생장 등으로 저하된 화양구곡의 문화 및 지형경관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구곡 주변 수목을 제거·정리하였음. 또한 화양구곡 특화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 발간, 전망대 4개소와 해설안내판 9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연공원법의 엄정한 보호와 속리산국립공원의 대표 명소로서 국민들의 볼거리 충족과 자원가치 보전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기에, ‘명승’지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복설정과 관리기관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명승’지정 시, 공원관리청과 역할분담 및 예산·인력 등 관리소요 반영
  - 괴산 화양구곡은 연간 약 25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공단은 별도로 화양분소를 두고 연간 2,920명(총 13명 배치, 상시 8명 근무)을 운용하여 자원보존, 탐방해설 및 시설물(탐방로, 전망대, 해설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음
  - 2013년 동 지구의 관리방안과 공원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료집 제작 등에 4천만원을 들였고, 향후 경관을 저해하는 상가 이전과 시설개선 및 지형경관자원 관리예산으로 약 100억 원이 소요됨
  - 따라서, ‘명승’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로 괴산군과 함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를 공동 지정하여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거나,
  - 기존 공원관리청에서 운용하는 예산과 인력 등에 상응하는 관리 소요자원을 투입하고, 괴산군의 ‘종합보존 활용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 공원관리청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3.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 가. 제안사항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사항임.
- 추진경과
  - 2014. 3.22 구례군 명승 지정 신청
  - 2014. 5. 7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014. 5.28 문화재위원회 명승 지정 검토
  - 2014. 6.13~7.13 지정예고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구례군수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舊禮 龍山 四聖庵 一圓)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89번지 등
- 면적 : 71,064m<sup>2</sup>
- 관리단체 : 구례군수, 오산 사성암

(3) 대상문화재 현황

- 백제 성왕 22년(544년)에 연기조사가 건립
- 원래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 고승인 의상·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가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이라 하였음
- 1800년에 구례향교에서 발간한 봉성지에 사성암의 경관은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 하였다.
-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과 지리산 연봉들을 모두 볼 수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조망점으로 훌륭함.

※ 지방문화재 현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33호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구례 사성암 마애여래입상

## □ 유래와 전설

<봉성지>에 이르기를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 하였다. 송광사 제6세인 원감국사 문집에도 언급이 보이는 데, “오산 정상에서 참선을 행하기에 알맞은 바위가 있는데, 이들 바위는 도선, 진각 양 국사가 연좌수도했던 곳”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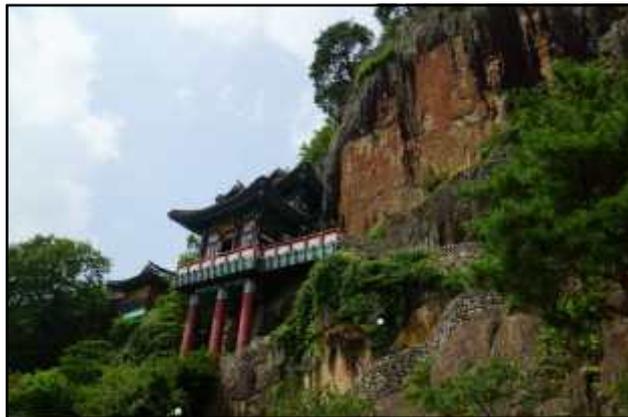
사성암 아래로 50m 정도 남쪽으로 돌면 높이 20m가 넘는 벼랑의 암벽에 약사전이 있다. 안쪽 암벽에 부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애여래입상(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20호)이다.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고 전해지며, 전체높이는 3.9m로, 주형거신광배에 두광이 있으며 소발의 머리에 육계가 솟아 있다. 기법은 옛 전통을 따랐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정상에 자리한 사성암은 기암절벽에 지어져 그 독특한 건축양식에 관광객의 감탄을 자아내며, 기도의 효험 또한 높다하여 최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백제 성왕 22년(544년)에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원래는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의 높으신 승려인 의상대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선사가 수도하였다하여 사성암이라 부르고 있다.

## □ 입지현황



위치 및 주변지형



사성암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에 위치해 있는 오산은 해발 531m의 호젓한 산으로 자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지리산 연봉들을 볼 수 있다. 정상에는 사성암 암자를 중심으로 풍월대, 망풍대, 배석대, 낙조대, 신선대 등 오산이 자랑하는 12비경이 있다. “오산을 오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고 두 번 다시 가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성암 부근의 기암괴석이 어느 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물줄기 또한 일품이기 때문이다.

## □ 지형 및 지질

사성암은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리봉(1,212m)과 등지리봉(690m) 사이를 섬진강이 동서 방향을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구레분지 남측의 오산(530m) 자락에 위치한다. 섬진강이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전라북도 곡성을 지나 구레에 다다르면 동쪽으로 꺾이면서 흘러가는데 남북 방향의 회룡천, 서시천, 간문천 등이 합류하는 구레 일대에서 개석이 진행되어 침식분지를 형성해 놓았다.

편마암 산지인 북동-남서 방향의 지리산지 사이에 중생대에 분출되어 형성된 안산암 및 유문암질 화산암이 오산 일대에 우뚝 솟으면서 충분히 개석되지 않은 채 암괴가 노출된 양상을 보인다. 오산 일대는 이처럼 독립된 산체처럼 솟아 있고 표층풍화 양상을 띠는 화산암의 풍화성격을 반영하듯 식피밀도가 적고 수평·수직절리의 발달에 따른 암괴노출이 많은 편이다. 오산 정상에서는 북쪽으로 섬진강 및 지류가 빚어 놓은 장방형의 구레 분지를 관찰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멀리 순천만과 광양만 까지 관찰이 됨으로써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또한 사성암 암자를 중심으로 풍월대, 망풍대, 배석대, 낙조대, 신선대 등 오산이 자랑하는 12비경이 있다.



오산 일대 3차원 입체기복도(DEM)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 일대는 주변이 편마암류(반상변정질편마암, 혼성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로 둘러싸여 기저부를 이루고 있고 중생대 백악기에 안산암 및 유문암질 화산암이 분출되어 충분히 개석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산지이다.

중성 화산암류인 안산암은 분출 후 형성된 균열에 많은 충전 물질이 매워져 있어서 풍화나 침식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이에 산지는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고도와 기복량은 화강암보다 적지만 커다란 단일 산체를 이루며 급사면을 이루는 곳은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이다(양재혁, 2007).

하곡의 규모와 형상은 보통 암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화강암 지대를 통과하는 하곡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협곡 구간에서는 후퇴해가는 산지사면, 분지에서는 완만한 구릉이 인접해 있거나 일정한 폭을 지닌 범람원도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 반면 편마암 하곡은 화강암 지대와는 달리 산지가 인접해 있어 비교적 좁은 편이며, 사면도 평활한 직선사면이 발달한다. 하도에 인접한 공격사면 쪽은 국지적으로 암벽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그 출현 빈도가 미약하며, 있더라도 고도가 낮고 암벽면도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조현, 2009).

섬진강의 지류는 선형성이 높은 산지하천(linear mountainous stream valley)의 성격을 띤다. 전체적으로 하상구배가 평지하천에 비해 급하고 하도에 인접한 산지나 구릉들로 인해 측방침식이 제한되어, 유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람원의 발달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충전물이 있더라도 그리 두껍지 않으며, 하방침식이 좀 더 증가하는 지점에서는 암석하상으로 바뀌기도 한다(Leopold et al, 1964; Fairbridge, 1968; 오경섭 외, 2008). 하지만 섬진강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높은 단열 밀도로 인해 장방형의 침식분지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오산 일대의 지질

□ 자연경관



오산에서 바라본 구례분지와 섬진강



안산암 수직절리의 도선굴, 산왕전

오산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면 섬진강이 서-동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형성된 침식분지가 발달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서쪽은 600m 내외의 능선이 남원분지 및 곡성군과 경계하고 있다. 이 분지는 깃대봉(191m)과 까치절사(297m)를 경계로, 구례읍이 위치한 비교적 폭이 넓은 중심 분지와 좁은 곡저 평야로 된 북쪽 분지로 구분된다. 북쪽 분지는 운봉분지와 방향이 연속되는 북동-남서쪽으로 전개되고, 중심 분지는 거의 직각을 이루어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지닌다. 이 지역의 지질은 전체가 비교적 침식에 강한 변성암 지대이므로 분지는 좁고 깊게 개석되어 형성되었다. 분지를 흐르는 하천으로는 분지의 남쪽에서 동류하는 섬진강과 운봉분지와 경계되는 북쪽 분수계에서 발연하여 분지를 남류하여 섬진강에 합류하는 서시천이 대표적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 일대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한 안삼암 및 유문암질 화산암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평·수직 절리의 발달에 따른 암괴노출이 심하다. 표층풍화 양상을 띠면서 산 정상부로 갈수록 암괴의 노출이 많아 이를 활용하여 일찍부터 암자가 입지하고 경관 조망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여겨져 왔다.

□ 역사문화경관

1) 지리지

사성암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과 현 사성암 경내에 위치한 도선굴에 대한 기술이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오산	신증동국여지승람	구례현	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산 정상에 바위 하나가 있고 바위에 빈틈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세상에 전하기를, “중 도선(道詵)이 예전에 이 산에 살면서 천하의 지리(地理)를 그렸다.” 한다.

2) 고시문

사성암과 배후의 오산에 대해 읊은 고시문이 전한다. 이들 고시문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사성암 -문(文)	황현(黃玿)	『매천집(梅泉集)』 (매천속집 권2)	<상사의 한적한 별장에 대한 상량문(上沙幽庄上梁文)>
오산 -시(詩)	황현(黃玿)	『매천집』 (권2)	<토동으로부터 오산의 승사에 이르러 묵다(自兔洞至鰲山僧舍宿)>

<시(詩)>

1. 황현(黃玿, 1855~1910), <토동으로부터 오산의 승사에 이르러 묵다(自兔洞至鰲山僧舍宿)>, 『매천집(梅泉集)』 卷2

갈라진 절벽 하늘가로 청산은 비껴 있고 / 石裂天垂積翠橫  
 거센 바람은 끝없이 벽 사이에서 나오네 / 剛風無際壁間生  
 들판을 향한 흰 물결 강줄기는 가느다랗고 / 崩雲向野江流細  
 검푸른 기와지붕 아래 불좌는 환하구나 / 紺瓦懸空佛座明  
 긴 밤에 별빛 아래로 걸음걸음 걸어 나가 / 遙夜步參星斗影

높은 누대서 휘파람 불어 난봉 소리 짓노니 / 高臺嘯作鳳鸞聲  
 그 어떤 사람이 흥공의 붓을 손에 잡고 / 何人解把興公筆  
 우뚝한 늘 표주로 적성 모습을 쓸 줄 알꼬 / 霞標亭亭寫赤城  
 한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러 막을 수 없어라 / 一氣橫天不可扃  
 귀신이 깎고 쪼개서 조정하느라 애를 썼네 / 神剝鬼劈費調停  
 용이 옛 굴에 숨어 있어 강바람은 어둑하고 / 龍沉古窟江風黑  
 매는 빈 대에 섰는데 돌 위의 비는 자욱쿠나 / 鶻立空臺石雨青  
 식견 있는 나그네는 쓸쓸히 말이 없는데 / 識字遊人悄無語  
 띠집 암자의 도승은 늙어 응당 신령하겠지 / 葺菴禪伯老應靈  
 아득히 오악 명산과 삼신산 밖에 노닐어 / 茫茫五岳三山外  
 언제나 속세의 꿈을 잠시나마 깨어 볼꼬 / 塵夢何時得暫醒

- \* 1897년(광무1), 매천의 나이 43세 때 지은 시이다. 제1수의 1~4구는 승사(僧舍)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푸른 산을 끼고 솟은 절벽으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그 아래 들판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곳에, 검푸른 지붕을 한 암자가 놓여 있고 그 속에 불좌(佛座)가 환히 빛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5~8구는 이 암자에 묵고 있는 작자의 행위와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바깥을 거닐면서 휘파람을 부르고, 자신의 소리에 화답해 줄 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제2수의 1~4구는 암자 주위 풍경을 그린 것으로, “귀신이 깎은 듯한 절벽이 있고, 용이 숨어 있다는 굴과 텅 빈 대가 있는 곳에 강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자욱이 내리는 풍경”을 읊고 있다. 5~8구는 화자의 생각과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말없이 혼자 있으면서 암자의 노승이 신령하리라 상상하고 명산에 노닐어 속세를 초월할 꿈을 꾀 보았다.”는 내용이다.

#### <문(文)>

1. 황현(黃玹, 1855~1910), <상사의 한적한 별장에 대한 상량문(上沙幽庄上梁文)> 中, 『매천집(梅泉集)』 매천속집 卷2

어기여차, 들보를 동쪽으로 드세나 / 兒郎偉拋樑東  
 지리산의 새벽달 허공에 떠 있다 / 方壺曙月臨空  
 신선인 옥보고를 손수 초대하여서 / 手招仙人玉寶  
 거문고를 튕기면 송풍곡(松風曲)이 그윽하리 / 援琴學寫松風

어기여차, 들보를 남쪽으로 드세나 / 南

도선 국사 옛 암자를 멀리 바라본다 / 遙望洗師遺菴

모래사장에 그의 자취 있는가 없는가 / 沙中圖跡在否

이 복지에 자욱이 구름 이내 일어나네 / 福地蒸作雲嵐

어기여차, 들보를 서쪽으로 드세나 / 西

너른 들에 뽕과 마가 끝없이 펼쳐졌다 / 大野桑麻萬畦

어찌 꼭 쟁기를 손수 들 게 있겠는가 / 何必自操耒耜

다만 봄비 속에서 비둘기 소리 듣누나 / 但聽春雨鳩啼

어기여차, 들보를 북쪽으로 드세나 / 北

종루가 곳집처럼 우뚝하게 서 있다 / 鍾臺如廩孤特

백성과 물산이 많은 것을 알겠거니 / 逝見民阜物豐

일생 동안 낙토에서 소요하며 살겠네 / 一生逍遙樂國

어기여차, 들보를 위쪽으로 드세나 / 上

작년에 왔던 제비가 올봄에도 왔구나 / 前度燕子來訪

문밖에 거마 소리 시끌벅적 나는 게 / 門外車馬喧闐

그 옛날 오의향을 방불케 하네그러 / 彷彿烏衣故巷

어기여차, 들보를 아래로 드세나 / 下

산천경개 모두가 시인 눈에 들어온다 / 江山盡入吟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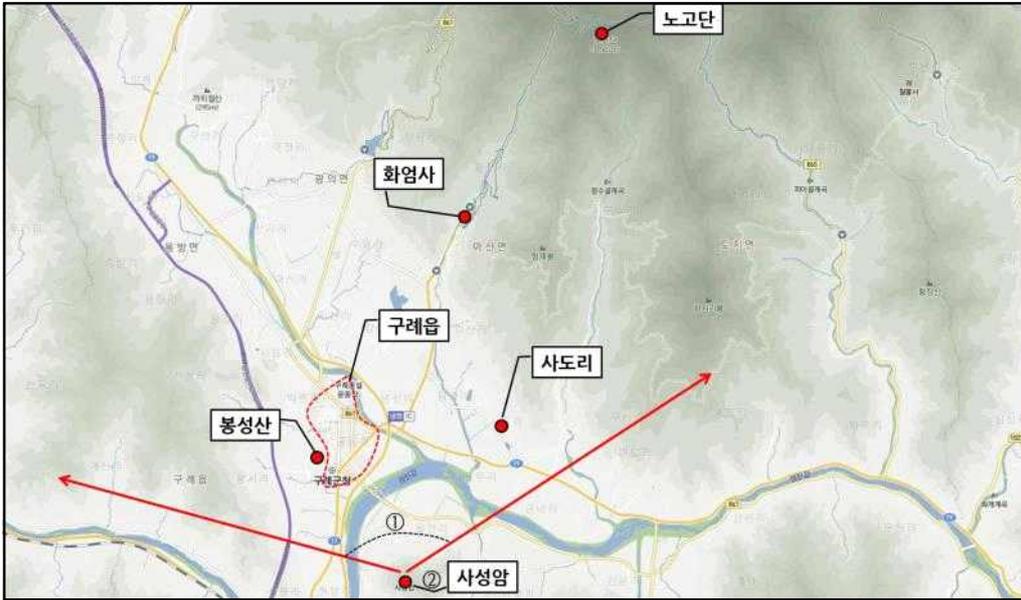
날마다 이 땅의 제공들과 모여서는 / 日與四海諸公

손뼉 치며 즐거이 시를 읊고 논하리라 / 抵掌揚扨騷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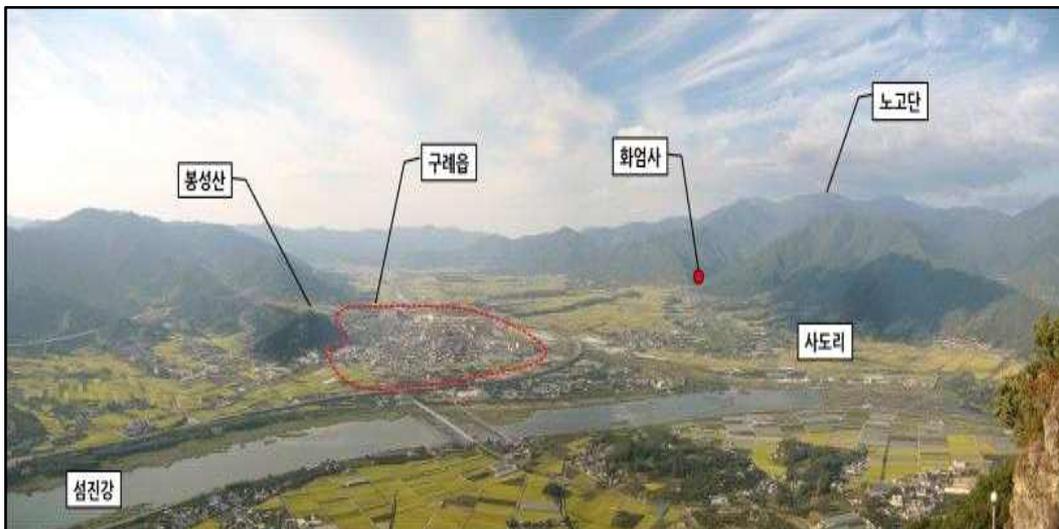
- \* 이 글은 매천 황현이 전북 구례 마산면(馬山面) 사도리(沙圖里)에 상사(上沙) 마을에 별장을 짓고서 쓴 상량문이다. 이 상사 마을은 도선 국사(道洗國師)가 공부했던 곳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황현의 선친이 은거를 위해 별장을 지었는데, 갑오년(1894)에 난이 일어나 헐었다가 매천이 낙향한 뒤 다시 별장을 지었던 것이다. 매천은 상량문 뒤에 6수의 시를 덧붙였는데, 제2수에서 황현이 이 별장에서 멀리 ‘도선 국사 옛 암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암자는 구례군 문척면(文尺面) 죽마리(竹麻里)에 있는 사성암(四聖庵)을 말한다. 연기 조사(緣起祖師), 원효대사(元曉大師), 도선 국사, 진각 국사(眞覺國師)가 수도하던 곳이어서 ‘사성암’이라 불리었던 곳이다.

### 3) 현재적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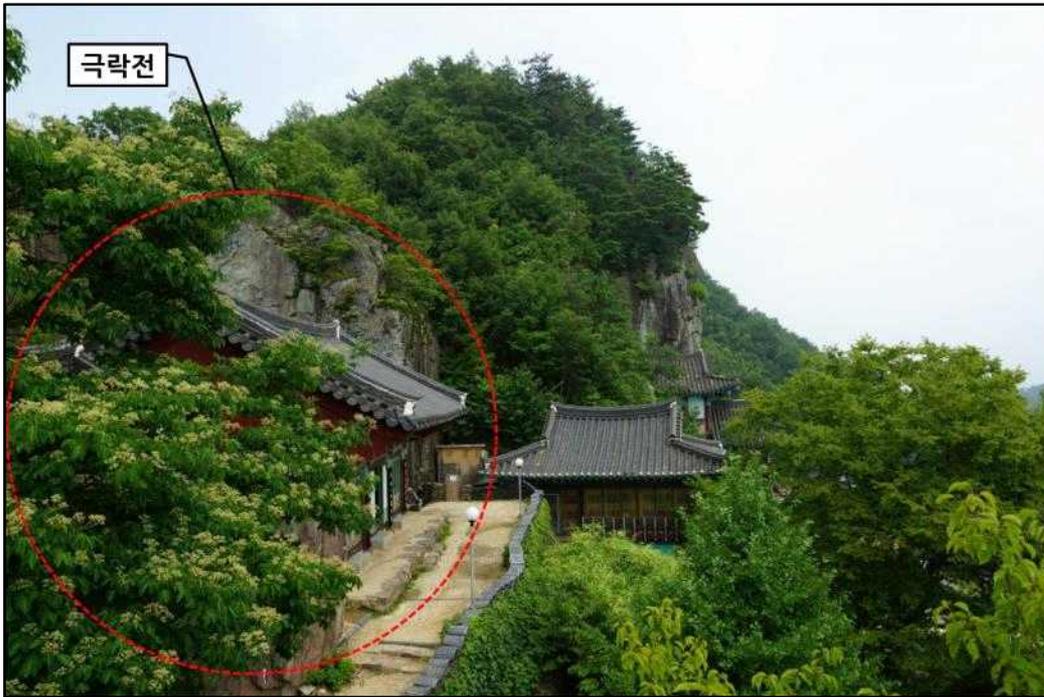
사성암에 관한 고시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실경산수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리지나 고시문의 내용도 사성암 자체에 대한 것이기 보다 사성암이 있는 오산에 대한 기록이나 오산에서 노래한 고시문이 전해진다. 고자료가 부족함에도 사성암이 명승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구례 및 섬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조망점이 되기 때문이다. 사성암에서 바라본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① 사성암에서 일대를 바라본 시선과 주요 지점



## ② 사성암 극락전



### 라. 검토의견

<\*\*\*\*>

- 구례 오산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544년)에 연기조사가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원래 오산암이라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 고승인 의상·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가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이라 하였다.
- 1800년 구례향교에서 발간한 『봉성지』에 이르길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 하였다면서 사성암의 빼어난 경관을 언급하고 있다.
- 이처럼 오산 사성암은 우리 선조들에게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예부터 경관이 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산 사성암을 찾고 있다.
- 구례군에서는 오산 사성암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 5억을 투입 탐방로(데크시설)를 설치하였고, 2012년도부터는 20억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등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또한, 구례군에서는 주변 경관 및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해 갈 예정이다.
- 이처럼 구례군에서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오산 사성암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군민들과 더불어 명승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마. 지정조사 의견('14.5.8)

### <\*\*\* 문화재위원회>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문화재 지정 가치

- 구례 오산 사성암은 구례군 문척면에 솟아오른 오산의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로서, 사성암의 여러 위치를 비롯해 오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양호한 조망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곳임. 오산 사성암 일원에서 조망되는 전망은 섬진강 하류가 굽이돌아 흐르는 하천경관과 함께 서시천 일대의 구례분지와 너른 들, 지리산 서남부의 능선과 계곡 등이 펼쳐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의 전경관(prospect landscape)을 보여주는 빼어난 풍광임.
- 사성암은 오산 정상 부근의 깎아지른 암벽을 활용하여 절집을 교묘하게 지은 사찰로서, 마애불, 도선굴, 등의 문화경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오산의 사성암 부근에는 풍월대 등 오산 12경이라 불리는 수려한 경관요소가 위치하고 있음.
- 구례 사성암 일원은 빼어난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와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대상으로 판단됨.

####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사성암을 포함한 오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구획함이 좋을 듯함.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지정 후 정밀조사와 오산 및 사성암 일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 III. 종합의견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 <\*\*\* 문화재 전문위원>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문화재 지정 가치
  -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오산의 정상부분에 백제시대 지었다는 사성암이 있고 주변의 여러 비경의 조망점에서 섬진강, 지리산 연봉 등의 경관을 잘 볼 수 있음.
  - 사성암은 원효 대사 등 네 분의 고승이 수도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또한 암벽에 마애여래입상 등은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되고 있음.
  - 오산의 정상에 위치한 여러 비경과, 조망점에서 섬진강과 지리산 연봉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수려한 경관, 사성암의 역사문화와 잘 어울려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사성암과 도선굴, 오산 정상부 일원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명승 지정 후에, 사성암 마애여래입상의 일부 암벽 박락 상태 등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

#### III. 종합의견

- 수려한 경관과 사성암의 역사문화환경이 잘 어울려 지정가치가 충분하며, 구례군과 사성암에서도 지정을 원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추진함

### <\*\*\* 문화재 전문위원>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문화재 지정 가치
  - 사성암이 위치한 오산 정상부 일원은 구례읍과 7개 면의 다양한 토지 이용과 거대한 지리산, 동류하는 섬진강과 이에 합류하는 서시천과 간문천, 회룡천 등이 조각한 아름다운 하천지형을 한 지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뛰어난 조망처이다. 오산 정상부 일대의 수월한 자연경관과 사성암과 주변 지형지물에 연관된 역사문화적 가치가 창발적으로 융합되면 그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 단애에 가까운 급경사지에 위치한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까지 소급되며, 그 경관적 가치가 빼어나다. 사성암에 관련된 네 분의 고명한 스님과

함께 민간에서 전승되어오는 일화들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탁월하다.

- 사성암과 주변 지형지물의 탁월한 경관미와 이들과 연관된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가치 등은 명승의 지정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오산 및 사성암 일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 III. 종합의견

- 탁월한 경관과 조망처를 제공하는 오산 정상부 일대의 사성암과 주변의 다양한 지형지물,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문화재 지정구역 : 8필지 · 71,129㎡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죽마리	산7	임야	153,177	32,702	대한불교조계종-사성암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2	죽마리	산7-1	임야	4,659	4,659		
3	죽마리	190-1	임야	344	344		
4	죽마리	188	종교용지	258	258	대한불교조계종-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5	죽마리	189	종교용지	149	149		
6	죽마리	190	임야	179	179		
7	죽마리	191	임야	136	136		
8	월전리	산39	임야	40,661	32,702		
계				199,563	71,129		

○ 문화재 명승지정 구역도(안)



## 14.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건립

###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신축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참고> 2014. 6월 문화재위원회 - 현지조사 후 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7호 부산영도 태종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 지정일 : 2005. 11. 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 \*\* 생활관 건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기존 태종\*\*에 \*\*\*\*\* \*\* 통합 운용으로 사용인원 증가 및 \*\*\*\*\* 기준 면적이 부족하여 신축 소요 발생
    - 생활관 증축

(단위 : m<sup>2</sup>/평)

층별	용도	면적		부지면적
		기존	증축	
지상1층	** 및 **시설	278.13/84.13	120.00/36.30	212.30/64.22
2층	(****시설)	278.13/84.13	120.00/36.30	
합계		556.26/168.27	240.00/72.60	
족구장		112.00/33.88		294.48/89.08
진입로		104.64/31.65		104.64/31.65
정화조		49.82/15.07		49.82/15.07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 7. 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부산 영도 태종대」 지정구역 내에 생활관을 건축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 \* 생활관 신축계획 부지는 현재 비닐지붕인 가시설이 있고, 주변에는 100년 이상(흉고직경 60cm 내외)된 해송10여 그루가 있으며, 족구장 주변도 주로 해송이 있음.
- 현 계획(건물)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100년 이상 해송 1그루가 제거되고 3~4 그루는 뿌리가 절단되는 등의 피해가 있고, 족구장도 현 계획대로 절토할 경우 주변의 수목 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또한 건물의 외형도 주변경관과 이질적이며, 족구장 주변 조경석 쌓기는 일본식으로 부적합함.
- 따라서 본 계획은 주변 소나무의 훼손이 없고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검토사항】

천기 2014-07-15

### 15. 「제천 용하구곡」 명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제천 용하구곡」 명승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천 용하구곡」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사항임.
- 추진경과
  - 2014. 4. 22 충청북도 명승 지정 신청
  - 2014. 7. 18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제천군수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제천 용하구곡(堤川 用夏九曲)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 면적 : 567,472m<sup>2</sup>

(3) 대상문화재 현황

- 용하구곡은 박세화(朴世和, 1834~1910)에 의해 설정된 도통계승과 자연애의 표상이며,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의 ‘존화양이(尊華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경관임
- 용하구곡은 구곡의 입구인 ‘용하동문(用夏洞門)’을 비롯하여 자연을 노래한 각자와 함께 담·소·폭포·여울·암반·자연첩석 등의 경관요소가 다양하게 어우러진 아홉 개의 경관포인트와 제1곡에서 제9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속경관의 원형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음

## ▣ 연혁 및 현황

### 1. 유래와 연혁

- 박세화(朴世和 1834~1910)는 1895년 을미사변을 겪고 단발령을 공포한 지 3년 되던 1898년 지금 충북 제천시 덕산면 억수리 용하리 일원에 용하구곡(用夏九曲)을 설정했다.
- 용하구곡은 대미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서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식년제 운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당해 문화재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존되고 있음
- 인접하여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하설산과 문수봉이 위치하고 있어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 용하구곡의 각각의 각서(刻書)는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에 존화양이와 위정척사 사상과, 도통의 계승 및 항일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교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구곡의 명칭으로 삼은 현존 최초의 구곡이라 할 수 있다

### 2. 자연환경

#### 가) 지형

- 용하구곡의 지형현황에 있어 입구부~9곡 구간이 해발 330m~510m에 걸쳐 분포하였다. 해발고는 330~390m(39.9%)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330m 이하는 29.2%, 450~510m는 12.4%, 390~450m는 11.9%, 510m이상은 6.6%를 나타냈다.
- 경사도는 대상지에서 급경사지(경사 20°이상)가 37.6%로 가장 넓었고 경사 10~15°는 10.9%, 15~20°는 14.5%, 경사 10°이하는 37.0%로 계곡부 주변으로 완경사지 분포비율이 높았다.
- 향은 서향, 북동향, 평지, 남서향이 15.6%~18.6%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북향, 동향, 남동향, 남향, 북서향, 북향이 1.1~8.5%를 나타냈다.

#### 나) 현존식생

- 용하구곡 입구부~제시인간별유천까지 총 5km에 이르는 구간의 현존식생 조사결과 자연식생, 자연-인공식생 혼효군락, 인공식생, 인공-자연식생 혼효군락, 초지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되었다.
- 자연식생으로 소나무군락(18.0%), 굴참나무군락(4.8%), 굴참나무-소나무군락(1.8%), 굴참나무-졸참나무군락(17.3%), 졸참나무군락(7.0%), 신갈나무군락(13.9%), 신갈나무-소나무군락(3.4%), 낙엽활엽수군락(1.3%)으로 전체적으로 6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인공식생은 소면적(55,598㎡)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잎갈나무군락(5.3%), 일본잎갈나무-밤나무군락(1.9%), 관목림(2.9%)으로 구분되며 관리가 필요한 자연-인공식생 혼효림은 졸참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1.8%), 신갈나무-밤나무군락(4.4%)으로 조사되었다. 인공림에서 자연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어가는 일본잎갈나무-신갈나무군락은 2.4%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억새군락(1.5%), 갈대군락(0.5%)이 소면적으로 분포한 현황이었다. 기타 지역으로 조경수식재지(0.5%), 밭(8.4%), 과수원(1.2%), 주거지역(1.8%)으로 조사되었다.

### 3. 인문환경

#### 가) 용하구곡을 설정한 이론적 배경

- 용하구곡은 행정구역이 억수리인데도 용하구곡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박세화(朴世和 1834~1910)는 고종 32년 을미년인 1895년 62세 되던 4월 장담에서 유인석이 주선한 향음주례에 참석하였다. 8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해 겨울 불억산(弗億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시서사동지(書示書社同志)」를 지었다.

박세화는 용하구곡 제9곡에 강학을 하기 위해 활연대에서 강학을 하고 향음주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즉 '소중화' '존화양이'의 중요성을 강학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박세화는 '소중화' '존화양이'사상과 도통의식을 교육하기 위해 용하구곡을 설정했다. 아울러 용하구곡 제9곡에 설치한 강서대(講書臺)에서도 '소중화' '존화양이'의 중요성을 강학했던 곳이다.

몸으로 도를 따라 죽고 동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 오늘에 취할 의(義)이다. 경서(經書)를 안고 산으로 들어가서 의관을 보존하여 지키고 하나도 오도(吾道)라 하고 하나도 화하(華夏)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에서 수명을 마치면 만족할 것이다. 문에 나가 고삐를 잡고 멀리멀리 들어가 볼 만한 것은 불억산(弗億山)이다. 지금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고하고 원하노니 제현들은 그것을 지키고 현혹되지 말라. 을미년(乙未年: 1895년) 동(冬) 십일월(十一月) 이십팔일(二十八日) 아침 의당노인(毅堂老人)이 쓰다.

- 박세화는 1895년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단발형 공포이후, 서사(書社)의 동지들에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의(義)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서(經書)를 안고 산으로 들어가 의관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이렇듯 박세화는 불억산을 의(義)를 지키는 장소로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 「불억산재사우 회강 강파부시 이백록동분운득기자(佛億山齋士友 會講 講罷 賦詩 以白鹿洞分韻得既字: 불억산재(佛億山齋)에서 사우(士友)들과 모여 강학을 하다가 강학을 과하고 시를 지었는데, 백록동(白鹿洞)을 운을 나누어 ‘기’자(‘既’字)를 얻었다)」. ‘불억산재’는 지금 충북 제천시 덕산면 용하구곡 내에 있었던 강당이다. 이 때는 아직 용하구곡을 설정하지 않은 때이다. 위 시의 제목을 통해서도 박세화가 소중화사상을 교육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보수지계(保守之計)는 바로 존화양이(尊華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소중화정신이다. 박세화는 1897년 가족도 불억산으로 이사시켰다.

## 나) 용하구곡 9개 곡의 명칭

- 용하구곡각자사실(用夏九曲刻字事實)  
 第一曲刻虹斷烟鎖四字，其下刻用夏曲四大字  
 旁小刻曰朱子武夷九曲詩蓋只是進道次序而今於其每曲詩  
 略取四字爲義，以別用夏九曲之塔云，三十六字。  
 派流上數百武許，一石橫壓溪流，方削平高數仞，上有一朶松。  
 盤【鬱】作偃蓋，下可坐十數人刻聽碧臺三字。
- 제1곡에 ‘홍단연쇄(虹斷烟鎖: 무지개는 끊어지고 푸른 안개가 감쌌)’ 네 글자를 새겼다. 그 아래 ‘용하구곡(用夏九曲)’ 네 개의 큰 글자를 새겼다. 옆에, ‘주자의 무이구곡시(武夷九曲 詩)는 단지 도(道)에 나아가는 차례를 읊은 시이기에, 지금 그 각 곡(曲)의 시에서 네 글자를 간략히 취하여 뜻을 삼아 ‘용하구곡(用夏九曲)’의 단계를 나눈다’라는 서른 여섯 자를 새겼다. 흐르는 시냇물을 거슬러 수백무 쯤 올라가면, 하나의 돌이 흐르는 시내를 가로 누르고 있는데, 네모나게 깎여있으며, 평평하고 높아 몇 길이 된다. 위에 하나의 늘어진 소나무가 있는데 울창하게 서려 비스듬한 지붕을 이루어, 아래에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데 ‘청벽대(聽碧臺)’ 세 글자를 새겼다.

第二曲刻前山幾重四字。  
有石臺臨流刻仙味臺三字(古稱仙味谷云)。  
谷深石明水白最好境界。

- 제2곡에 ‘전산기중(前山幾重: 겹겹이 쌓인 앞산)’ 네 글자를 새겼다. 돌로 이루어진 대(臺)가 있어 흐르는 시내에 닿아있는데 ‘선미대(仙味臺)’ 세 글자를 새겼다.(옛날에 ‘선미곡(仙味谷)’이라 불렀다). 골짜기가 깊고 돌이 밝으며 물이 희어 가장 좋은 경치이다.

第三曲刻架壑停棹四字。  
溪上石壁削立如屏，  
松楓森映一石鋪廣可徜徉，  
刻好好二字。

- 제3곡에 ‘가학정도(架壑停棹: 가학선이 노를 멈춤)’ 4자를 새겼다. 시내 위쪽에 석벽이 병풍처럼 깎아지른 듯 서있으며,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뺨뺨히 비치고, 돌 하나가 평평하고 넓어 어슬렁 거닐만 한데, ‘호호(好好)’ 두 글자를 새겼다.

第四曲巖花垂露四字，  
最幽深左右羅奇，悅人，  
一大石壓截溪流，上戴老松蒼髮，刻躡雲臺三字。

- 제4곡에 ‘암화수로(巖花垂露: 이슬 머금고 바위에 핀 꽃)’ 네 글자를 새겼다. 가장 그윽하고 깊으며 좌우에 기이한 경치가 펼쳐져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의 큰 돌이 흐르는 시내를 눌러 흐름을 끊고, 위로 푸르게 늘어진 노송을 떠받들고 있는데, ‘섭운대(躡雲臺: 구름을 밟는 대)’ 세 글자를 새겼다.

第五曲刻山高雲深四字，  
有長石平鋪，上有疊石作壁，  
水滄泓作潭，人傳下龍湫。刻睡龍潭三字。  
曾行路之無無心過者。

- 제5곡에 ‘산고운심(山高雲深: 산은 높고 구름은 깊다)’ 네 글자를 새겼다. 기다란 돌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데, 위에 층층의 돌이 벽(壁)을 이루었다. 물이 깊이 고여 못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하용추(下龍湫)라 전해서, ‘수룡담(睡龍潭)’ 세 글자를 새겼다. 일찍이 길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第六曲刻猿鳥春閒四字，  
林翳蔥蒨石壁中嵌空作窟宅，窈冥左入右出叫奇耽恠。刻羽化窟三字。

- 제6곡에 ‘원조춘한(猿鳥春閑: 원숭이와 새도 봄을 한가로이 즐김)’ 4자를 새겼다. 숲이 무성하게 가려져있는, 석벽(石壁)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동굴집(窟宅)이 있다. 그윽하고 어두우며,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기이함을 외치고 괴상함을 즐길 수 있어, ‘우화굴(羽化窟: 신선이 되는 굴)’ 세 글자를 새겼다.

第七曲刻峯雨飛泉四字,

石壁嶂圍, 水從上墜下作長瀑,

人傳上龍湫刻洗心瀑三字南北石壁對顏. 刻兩屏夾映四大字.

境界最好, 可嘯傲但深回, 幽冥楓時覺凜乎轉冷, 不可淹留.

- 제7곡에 ‘봉우비천(峰雨飛泉: 봉우리에 내린 비가 나르는 샘물이 되다.)’ 4자를 새겼다. 석벽(石壁)이 우뚝하게 두르고 있는데,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져 큰 폭포가 된다. 사람들이 상용추(上龍湫)’라 전하여, ‘세심폭(洗心瀑: 마음을 씻는 폭포)’ 세 글자를 새겼다. 남북으로 석벽이 얼굴을 대하고 있어, ‘양병협영(兩屏夾映: 두 개의 병풍이 나란히 끼고 비춘다)’ 네 개의 큰 글자를 새겼다. 경치가 가장 좋아 휘파람 불며 뽀뽀 만하다. 다만 물이 심하게 들고 날씨가 어둑해지면 갑자기 오싹해지고 냉기가 몰려와 오래 머무를 수 없다.

第八曲刻風烟欲開四字.

石層級而下水懸, 轉作臥瀑下匯泓作潭. 刻活來潭三字.

- 제8곡에 ‘풍연욕개(風烟欲開: 바람과 안개가 걷히려함)’ 4자를 새겼다. 돌이 층계를 이루고, 아래에 물이 매달려 ‘와폭(臥瀑: 누워있는 폭포)’을 이루었으며, 아래에 물이 모여 휘돌아 못을 이루니, ‘활래담(活來潭: 힘차게 흘러내려오는 못)’ 세 글자를 새겼다.

第九曲刻除是人間別有天七字.

下有石廣作臺, 刻講書臺三字.

下有巨石屹立水口. 刻所立卓爾四大字.

講書臺上, 地平鋪, 作道場, 乃築石爲臺, 可坐數十餘人,

作東西兩墻, 堂塗開庭, 入碑刻豁然臺三字.

- 제9곡에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 인간세상 밖에 있는 별천지)’ 일곱 글자를 새겼다. 아래에 돌이 있는데 넓게 대(臺)를 이루어 ‘강서대(講書臺:

책을 읽는 대)’ 세 글자를 새겼다. 아래에 큰 돌이 물가에 우뚝 솟아있어 ‘소립탁이(所立卓爾: 서있는 것이 우뚝함)’ 네 글자를 크게 새겼다. ‘강서대(講書臺)’ 위는 땅이 평평하게 펼쳐져 ‘도량(道場)’을 이루어, 이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었는데 수 십여 인이 앉을 수 있다. 동서 두 계단의 당도(堂塗)를 만들었으며, 정원을 열고 비석을 세우고 ‘활연대(豁然臺: 탁 트인 대)’ 세 글자를 새겼다.

又於第一曲下流百武許，一石蹲在水岸，刻照寒臺三字。

沿流下有石壁，壁下一石倒衝水腹，刻映雲潭三字。

下數百武許，水鳴清澈，石白宏張，可愛。刻霽月光風四大字。

下數百武許，吼瀑倒石石層作臺。刻生生天心四字。

後面山之陽，石高，刻用夏洞門四大字。上刻忠孝二大字。

- 또 제일곡 하류 백무 켠에 하나의 돌이 물가에 걸터앉았는데, ‘조한대(照寒臺: 차가움이 비치는 대)’ 세 글자를 새겼다.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래에 석벽이 있는데, 석벽 아래 하나의 돌이 물가운데 거꾸로 쳐박혀있어, ‘영운담(映雲潭: 구름이 비치는 못)’ 세 글자를 새겼다. 아래 수 백무 켠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소리 내며 흐른다. 돌이 하얗고 넓어 보기 좋다. ‘제월광풍(霽月光風: 비 개인 후 떠오르는 달 햇빛이며 부는 바람)’ 네 큰 글자를 새겼다. 아래 수백무 켠에 폭포가 포효하고 돌이 거꾸로 서 있으며, 돌이 층층이 대를 이루어 ‘생생천심(生生天心: 천심이 생생함: 본연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러남)’ 네 글자를 새겼다. 뒷면 산 북쪽 높은 돌에 ‘용하동문(用夏洞門)’ 네 개의 큰 글자를 새겼으며, 위에 ‘충효(忠孝)’ 두 개의 큰 글자를 새겼다.

#### 다) 용하구곡 9개 각 곡별의 명칭과 의미는

- 제1곡 청벽대(聽碧臺) · 홍단연쇄(虹斷烟鎖) : 맑은 물이 구르고 용솟음치는 소리를 듣는 형국임과, 무지개는 끊어지고 연기가 자욱하다는 뜻으로서, 꿈은 사라지고 뽕뽕한 연기 속에 갇힌 형국으로 도학이 쇠락하는 것을 의미
- 제2곡 선미대(仙味臺) · 전산기중(前山幾重) : 신선이 놀던, 신선의 취흥이 남은 듯 한 곳임과, 앞에 놓인 첩첩 산이 몇 겹인가를 뜻하며, 우리 겨레와 도학의 장래가 막막함을 의미
- 제3곡 호호대(好好臺) · 가학정도(架壑停棹) : 좋아하는 것을 좋아함과, 배는 서고 노 또한 멈춰 섰다 라는 뜻이며, 도학의 맥이 끊어져 감을 한탄한다는 의미

- 제4곡 섭운대(躡雲臺) · 巖花垂露(암화수로) : 아슬아슬하게 맺힌 이슬 꽃과, 구름을 밟는 곳이라는 뜻이며, 국운과 도학의 운명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슬처럼 가련함을 한탄한다는 의미
- 제5곡 수룡담(垂龍潭) · 산고운심(山高雲深) : 용이 잠든 못이라는 뜻과, 산은 높고 구름은 깊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학문과 기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잠룡 같은 무리 들이 숨어 사는 것을 의미
- 제6곡 우화굴(羽化窟) · 원조춘한(猿鳥春閒) : 학문적 득도로 한가로이 속세를 잊고 자연과 한 몸으로 유유자적하는 삶을 염원하다와, 원숭이와 새도 봄을 한가로이 즐길 것이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속세를 잊고 길짐승, 날짐승의 친구로나 살고 싶다는 의미
- 제7곡 세심폭(洗心瀑) · 양병협영(兩屏夾映) : 마음을 씻는 폭, 삼각병풍처럼 서있는 절벽이 양쪽 협곡에 비취 장관을 이루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서양과 왜국의 협공을 받는 물에 어린 그림자 같은 국운을 의미
- 제8곡 활래담(活來潭) · 풍연욕개(風烟欲開) : 좋은 물이 활활히 내려오는 곳임과, 바람에 연기 건힌다는 뜻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암운들이 건혀 나가고 모든 일이 뜻대로 활짝 열리길 염원한다는 의미
- 제9곡 활연대(豁然臺) ·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 · 소립탁이(所立卓爾) : 눈앞이 확 트임과, 이곳이 바로 인간세상이 아닌 별천지로구나라는 뜻으로서, 불가에서의 활연대오 처럼 국운과 도학의 앞날이 활연히 열리길 염원한다는 의미

라) 각곡을 촬영한 사진

<p>第 1 曲 - 청벽대, 흥단연쇄</p>	<p>第 2 曲 - 선미대, 전산기중</p>	<p>第 3 曲 - 호호대, 가학정도</p>
		
<p>第 4 曲 - 섭운대, 암화수로</p>	<p>第 5 曲 - 수룡담, 산고운심</p>	<p>第 6 曲 - 우화굴, 원조춘한</p>
		
<p>第 7 曲 - 세심폭, 양병협영</p>	<p>第 8 曲 - 활래담, 풍연육개</p>	<p>9 曲 - 활연대, 제시인간별유천</p>
		

○ 각서의 현황

구 분	명칭 및 석각	보존여부	경관 상징 석각	보존여부
용하동문	용하동문	여		
제 1 곡	홍단연쇄	부	청벽대	부
제 2 곡	전산기중	여	선미대	여
제 3 곡	가학정도	여	호호	부
제 4 곡	암화수로	여	섭운대	부
제 5 곡	산고운심	여	수룡담	부
제 6 곡	원조춘한	여	우화굴	여
제 7 곡	봉우비천	부	세심폭, 양병협영	여
제 8 곡	풍연육계	여	활래담	여
제 9 곡	제시인간별유천	여	소립탁이, 강서대, 활연대	여

○ 용하구곡의 경관요소

구 분	곡 명	경관 요소
1곡	虹斷烟鎖	너럭바위, 잔잔한 여울, 넓은 수면, 산재한 암설
2곡	前山幾重	자연 첩석, 급한 여울, 참나무 군락, 바위들
3곡	架壑停棹	자연 첩석, 참나무 군락, 바위, 여울
4곡	巖花垂露	이끼암석, 암설, 거석, 맑은 물
5곡	山高雲深	흩어진 암설, 급한 물살, 암석에 부딪치는 물소리
6곡	猿鳥春閒	자연 첩석, 급한 물살, 기암석, 여울목
7곡	蜂雨飛天	자연 첩석과 어우러진 폭포, 시원한 물소리
8곡	風烟欲開	자연 첩석과 어우러진 폭포, 시원한 물소리, 폭포 다음에 오는 깊은 물웅덩이(소)
9곡	除是人間別有天	너럭바위, 양안의 암설, 각자, 절벽, 자연림, 수변경관, 스카이라인

#### 4. 관련 인물

○ 박세화 [朴世和, 1834년(순조 34)~ 1910]

- 경술국치때 순국한 순국열사로 자는 연길(年吉), 호는 의당(毅堂), 본관은 밀양이다. 1834년 3월 10일 함남 고원군 남흥리에서 박기숙(朴紀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는 고향에서 유학을 배웠으며, 문명과 효도로 이름이 높았다.
- 1884년 갑신정변 후에는 태백산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후신양성에 힘썼으며, 1895년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을미사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하여 시해 당하자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애도식을 거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문경병참에 피검되어 한성사령부에 구금되었다가 8개월만에 석방되었다.
- 그 후 음성의 창동에 이사하여 살았는데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크게 탄식하고 말하기를 “나라도 망하고 도도 망하였으니 장차 이를 어찌할꼬“하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시를 지어 뜻을 표하기 23일만인 1910년 8월 28일 영면하자 향년 67세였다. 그의 장례에 복을 입은 문인이 80여명 이었다.
- 덕산면 용하영당에 향사되었고, 6. 25 사변으로 용하영당이 불에 타서 1951년 청풍면 장선리로 병산곡으로 이건하고 병산영당이라 개칭한 후 영정을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하고 있으며, 1994년 현재의 금성면 사곡리로 이건하였다. 덕산면 용하동에는 박세화가 명명하고, 그의 제자 이원우가 각(刻)한 용하구곡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 이원우 [李元雨, 1880년(고종 17)~ 1962]

- 자는 사선(士善) 호는 확재(確齋), 본관은 경주. 1880년에 덕산면 성암리에서 태어났다. 이종국(李鍾國)의 아들이다. 의당 박세화와 회당 윤운선에게서 수학하였다. 성리학을 통하여 후진양성에 진념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봉양읍 구곡리 요옥동에서 사망하였으며, 병산영당에 배향되고 있다. 의당 박세화의 지시에 따라 용하구곡을 각(刻)하고 용하실기를 기록하였다.

## 라. 검토의견 (\*\*\*\*)

- 의당 박세화가 명명하고 학재 이원우가 각서한 용하구곡은 조선말 일제 강점기 시 “존화양이”와 “척사위정” 사상을 구곡으로 표상화하였으며
- 또한, 존화양이(尊華攘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 즉 도통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구곡의 명칭으로 삼은 현존 최초의 구곡임으로 당해 문화자원을 명승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마. 지정조사 의견('14.7.18)

### <\*\*\* 문화재위원회>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제천 용하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1) 제천 용하구곡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박세화(1834~1910)에 위해서 명명된 구곡으로서, 자연에 은일하고자 하는 도교적 자연관과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척화사상”이 담겨있는 구곡경관임.
- 2) 국내에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구곡경관이 그 일부가 훼손되어 구곡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희소한데, 용하구곡은 구곡의 입구인 용하동문을 비롯해, 제1곡에서 제9곡까지 아홉 개소의 구곡경관이 연속경관으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임.
- 3) 용하구곡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월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담, 소, 폭포, 여울, 바위 등의 경관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으며, 구곡의 각 경관지역마다 많은 각자가 남아 있어 용하구곡의 문화경관적 의미도 충실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임.
- 4) 용하구곡은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초기에 형성된 구곡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구곡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대상으로 판단됨.

####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 아홉 개의 구곡경관지역 및 구곡경관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구획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지정 후 정밀조사와 구곡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 III. 종합의견

- 제천 용하구곡은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제천 용하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1) 제천 용하구곡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화서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제자인 박세화(朴世和1834~1910)에 의해 명명된 구곡으로서, 도교의 자연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제의 의해 도학의 질서가 붕괴되고 조선의 풍속이 변화하는 것에 반발해서 설정한 것이다. 박세화는 존화양이(尊和攘夷) 사상에 의해 구곡의 명칭을 정했으며, 오랑캐로 여기는 일제의 만행을 저지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교육시키기 위해 문하생들과 함께 이곳에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용하구곡은 구곡의 대문역할을 하는 용하동문이 있고, 제1곡- 제9곡까지 아홉 개의 구곡경관이 연속경관으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명승으로서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 3) 용하구곡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으면서 그동안 안식년을 취하고 있었음으로 담, 소, 폭포, 여울, 바위 등의 경관요소가 잘 어우러져 잘남아 있으며, 곡마다 특징을 살린 바위글씨와 시문등이 전해져 오고 있어 인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 4) 용하구곡은 구곡경관으로서 훼손이 안된채 잘 남아있고 박세화를 비롯한 기호사림과 학자들이 기거하고 다녀간 흔적들이 많음으로 복합명승으로서의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아홉 개의 구곡경관지역 및 구곡경관의 보존을 위해 되도록 큰 범위로 구획한다. 산림청등 국가소유의 토지임으로 사유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지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최소한의 관찰로 조성, 안내판, 방향표시판 등의 기초적인 시설은 하여야 할 것임.

### III. 종합의견

- 용하구곡은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특히 구곡으로서의 연속경관으로서 흔치않은 좋은 사례이며, 명승으로 지정시 타구곡의 명승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I.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제천 용하구곡
3. 문화재 지정 가치

- 1) 용하구곡은 한말의 심리 철학자이며 항일운동가인 의당(毅堂) 박세화(朴世和: 1834~1910)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棹歌)에서 차용한 4자의 경구(주제어)와 경물을 대구(對句)로 하여 아홉 승경을 명명한 것으로, 매우 특이한 설정의 구곡이다.
  - 2) 용하구곡은 의당집(毅堂集)」에 「용하구곡각자사실(用夏九曲刻字事實)」 구곡시와 구곡 설정과 경영의 사유가 전해지고 있어 문화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구곡 입구에 각자(刻字)된 대형의 바위글씨 ‘용하동문(用夏洞門)’은 신선이 사는 선계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암시하며 이를 포함한 구곡은 ‘도통(道通)의식’과 ‘존화양이(尊華攘夷)’ 정신에 발로한 것임이 확인된다.
  - 3) 국내에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은 구곡은 훼손되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사례가 매우 희소한데, 용하구곡은 구곡의 입구인 용하동문을 비롯해, 제1곡에서 제9곡까지 아홉 개소의 국부경관이 훼손이나 교란 없이 존재하여 구곡으로서의 원형 경관적 특질은 물론 연속경관으로서 전형성을 보여준다.
  - 4) 용하구곡이 위치한 대미산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일부로서 다양한 지질 현상을 보이는 암(巖)과 대(臺), 소(沼), 폭(瀑), 담(潭), 여울(灘) 등이 오염원이 없는 수계(水系) 및 잘 보존된 자연림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구와 경물로 이루어진 각 곡의 정체성이 명료하고 구곡명의 바위글씨가 있어 문화경관적 요소 또한 충실하다고 판단됨.
  - 5) 용하구곡은 조선 말기~일제강점기에 사림(士林)의 항일운동 강학소(講學所)로 구곡이 활용된 사례로, 교육적 효과 또한 탁월한 경관자원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계류의 폭원 또한 8km 구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약 10m 이상의 폭원을 갖고 있는 점은 명승 활용의 역량성 인자로 부각된다.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연계경관적 속성상 용하동문 각자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가옥의 존재나 수해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일률적인 쪼갬기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러운 호안 석축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1곡 청벽대(靑壁臺) 이전 지역에서부터 제9곡 활연대(豁然臺)까지 명승 지역으로 지

정하되 1~9곡 상하 100m 지역을 포함하며, 좌우로는 산지 구곡상의 여건상 협곡의 형태를 이루는 가시권역내 능선을 포함하여 지정 면적을 구획할 것을 권유한다. 전반적으로 대상 지역이 산림청 등 국유지이므로 사유재산권 문제로 인한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 보호·관리 방안 검토

- 지정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곡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성 확보와 경관 체험의 효율화를 위한 일부 구간의 관찰데크와 경관안내판 등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바위글씨는 지속적인 수마(水磨) 등 마모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관자원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생 및 복구 방안이 요망된다.

## III.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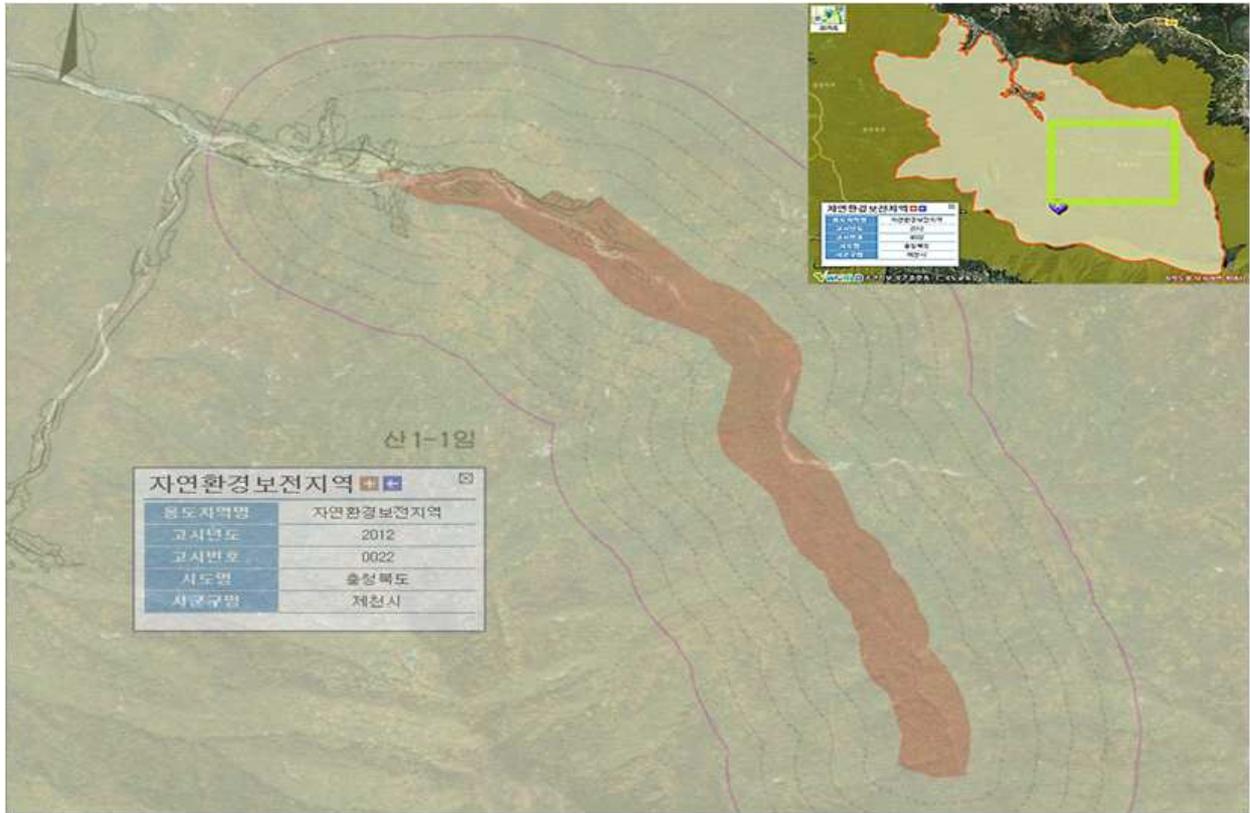
- 제천 용하구곡은 국가지정 명승으로서 충분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자연 및 문화경관이 복합된 유산경관으로 판단된다.

### 바. 문화재보호 지정구역 : 10필지 567,472㎡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12-1번지 일원
- 보호(지정)구역 토지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덕산면 월악리	12-1	전	885	885	국	산림청				
2		12-2	전	2,020	2,020	국	산림청				
3		12-3	대	603	603	국	기획재정부				
4		12-4	답	612	612	국	산림청				
5		12-5	구거	1,169	1,169	국	국토교통부				
6		29-1	구	1,052	1,052	국	기획재정부				
7		854	도	1,617	1,617	국	국토교통부				
8		855	천	73,030	73,030	국	국토교통부				
9		855-10	천	115	115	국	국토교통부				
10		산1-1	임	42,824,518	486,369	국	산림청				
11				42,905,621	567,472						

○ 문화재 명승지정 구역도(안)



## 【보고사항】

천기 2014-07-16

# 16.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가. 보고사항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국가보호종의 증식·복원에 대한 중복 투자 등을 하고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심하다는 국회·환경단체 및 언론 비판이 있어, 이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국가보호종 관리부처가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문화재청), 희귀식물·특산식물(산림청) 등(이하 “국가보호종”)

## I 추진 배경

- 보호 가치가 있는 동·식물 상당수를 여러 부처가 중복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상호 소통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 제약
- 부처별 사업 중복 조정,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II 추진 경과

- (‘14. 2~4 )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운영  
-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계획」 초안 마련(3월),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4월)
- (‘14. 6월) 「 관리개선 종합대책」 차관회의 보고
- (‘14. 6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
- (‘14. 7월) 공동 훈령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 II 향후 일정

- (‘14. 8월) 제1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개최
- (‘14. 7월~11월) 공동 복원 시범사업 추진(독도, 산양, 제비동자꽃)
- (‘14. 12월) ‘14년도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협업사업 추진평가

##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63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한국물새네트워크)/인천 서구 ○ 허가사항 : 포획(가락지 부착 후 방사) ○ 수량 : 10개체 ○ 목적 : 저어새 이동 경로 및 서식지 연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한국물새네트워크)/인천 중구 ○ 허가사항 : 포획(가락지 부착 후 방사) ○ 수량 : 10개체 ○ 목적 : 저어새 이동 경로 및 서식지 연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한국물새네트워크)/인천 남동구 ○ 허가사항 : 포획(가락지 부착 후 방사) ○ 수량 : 10개체 ○ 목적 : 저어새 이동 경로 및 서식지 연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한국물새네트워크)/전남 영광군 ○ 허가사항 : 포획(위치추적장치 및 가락지 부착 후 방사, 혈액채취) ○ 수량 : 5개체 ○ 목적 : 저어새 이동 경로, 서식지 연구 및 유전자원 확보	<허가>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 신청인 : ***(한국물새네트워크)/전남 영광군 ○ 허가사항 : 포획(위치추적장치 및 가락지 부착 후 방사, 혈액채취, 미부화알 2개, 이소 후 빈둥지 1개 반출) ○ 수량 : 20개체 ○ 목적 : 저어새 이동 경로, 서식지 연구 및 유전자원 확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li> <li>○ 허가사항 : 소각</li> <li>○ 수량 : 1개체</li> <li>○ 사유 : 폐사에 따른 소각</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강원 인제군</li> <li>○ 허가사항 : 사육</li> <li>○ 수량 : 4개체</li> <li>○ 목적 : 산양 복원 증식(출산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충북 청원군</li> <li>○ 허가사항 : 사육</li> <li>○ 수량 : 10개체</li> <li>○ 목적 : 원앙의 증식 및 연구</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부산 사하구</li> <li>○ 허가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li> <li>○ 수량 : 2개체</li> <li>○ 목적 : 전시(영구장애에 따른 자연복귀 불가 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부산 사하구</li> <li>○ 허가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전시(영구장애에 따른 자연복귀 불가 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부산 사하구</li> <li>○ 허가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전시(영구장애에 따른 자연복귀 불가 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부산 사하구</li> <li>○ 허가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전시(영구장애에 따른 자연복귀 불가 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경기도과학교육원장/경기 수원시</li> <li>○ 허가사항 : 사육</li> <li>○ 수량 : 4개체</li> <li>○ 목적 : 원앙의 증식 및 전시</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서울대공원장/경기 과천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3개체 ○ 사유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 신청인 : 서울대공원장/경기 과천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사유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3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42호 까막딱따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붉은배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대지면적 1618.00㎡, 연면적 610.00㎡, 지상 1층 2동, 일반철골조(건물전면폭 1동 30m, 2동 25m / 건물옆면폭 1동 : 12m, 2동 10m), 최고높이 5.55m, 조경면적 90.00㎡, 지붕 THK175 준팔연판넬</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삭만동 *****</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2015.6월</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지상1층 1개동, 높이 5.19m, 대지면적 380㎡, 건축연면적 69.30㎡, 경량철골구조</li> <li>-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놀차동 90 번지</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2014.12월</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li> <li>○ 허가사항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어린이 안전용 CCTT 설치</li> <li>- 사업내용 : CCTV 지주 3식(4m 2개소, 8m 1개소) 및 CCTV 설치</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2014.10월</li> <li>○ 조건부허가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CCTV는 설치시 별도의 지주를 세워 설치하지 말고 기존의 조명등 지주나 건물에 설치할 것.</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li> <li>○ 허가사항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석축정비 및 정자 개축</li> <li>- 사업내용 : 석축보수 698㎡, 인도개설 187m, 목조기와 정자개축(1조)</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2014.10월</li> <li>○ 조건부허가 : 난간의 재질은 목재 중 강도가 강한 재질로 설치</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 홍도 철새이동생태계 복원사업</li> <li>- 사업내용 철새 중간기착지 휴식처 제공</li> <li>· 인공 햇대 설치 10개소(지빠귀류 휴식처 제공) : 20㎡(10m×2m)</li> <li>· 관목림 사철나무 10본 식재(통영 홍도 자생수목) : 휘파람새류, 멧새류 휴식처 제공</li> <li>· 인공연못 1개소 설치 : 등대 옥상부 활용</li> <li>· 무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동작감지 카마라 설치 (명종위기종 확인)</li> <li>○ 허가기간 : 허가일~2014.9월</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주)****잠수함</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잠수함 운행기간 연장</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li> <li>- 사업내용 : 잠수정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항지역 : 수심 약 20m 잠항 후 반경 50m 이내 운항</li> <li>· 운항시간 : (5~10월) 08~19시, (11~익년4월) 09~17시</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잠수정 운영관리계획서 대로 시행하되,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를 제출</li> <li>- 잠수정 운항에 따라 마찰면 발생으로 고착성 저서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마찰면의 재훼손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1. ~ 2016.6.30.</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li> <li>-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li> <li>-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1층, 건축면적 262.3㎡, 높이 6.5m, 일반철골조, 우수정화조 25인용</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6.26. ~ 2014.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호동 *****</li> <li>- 사업내용 :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84㎡, 높이 4.75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6.26. ~ 2014.9.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낙석방지 시설</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20</li> <li>- 사업내용 : 탐방로 낙석방시설 설치(105㎡)</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8. ~ 2014.12.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자 *** 외 1인</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사유림 산림사업</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산*</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로쇠나무 1,000본 식재(3,000㎡), 버섯재배(50㎡)</li> <li>· 작업로 보수(폭3m, 길이 300m), 울타리 보수(1.5km)</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8. ~ 2015.6.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4.15m, 건축면적 119.13㎡, 연면적 102.72㎡</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1. ~ 2014.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주식회사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LTE장비 증설</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li> <li>- 사업내용 : LTE장비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 장비(47×18×51cm) 증설 : 축전기, 정류기 (29×13×19cm) 포함 *헬기장 하단부</li> <li>· 안테나 설치 : 2개(5×150cm, 8×30cm) *경찰청 철탑</li> <li>· 급전선 포설(기존 포설구간과 동일) : 7/8" 5M×2본, 7/8" 30M×2본, 1/2" 75M×2본</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1. ~ 2014.9.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봉정암 화장실 신축</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li> <li>-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신축(41.28㎡, 한식목조), 진입계단 및 이동통로 설치(33.05㎡)</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1. ~ 2014.12.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황칠명품화육성RIS사업단)</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황칠나무 잎·가지 시료 채취</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li> <li>- 사업내용 : 황칠나무 잎·가지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cm 길이 가지(Y자 부위) 약 5개(500g 내외)</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며 연구결과 자료는 우리청 제출</li> <li>- 제출된 사용계획서 외 용도(상업적 용도 및 수출 등)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3. ~ 2014.8.31.</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521호 웅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경북대학교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무궁화 가지·잎 시료 채취</li> <li>- 사업위치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번지</li> <li>- 사업내용 : 무궁화 가지·잎 시료(가지 20cm, 잎 20장) 채취</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며 연구결과 자료는 우리청 제출</li> <li>- 제출된 사용계획서 외 용도(상업적 용도 및 수출 등)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8. ~ 2014.8.31.</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오세암 지하수 개발</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번지</li> <li>- 사업내용 : 오세암 지하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깊이 228m, 굴착지름 200mm, 동력장치 3마력</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추공사 중 동력장치에서 유출될 수도 있는 기름(윤활유)이나 시추공에서 발생하는 암석 파쇄물(이질물)과 오탁수 등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및 처리</li> <li>- 시추공에서 회수된 코어(core)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도록 함</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8. ~ 2014.12.31.</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자 : 문화재청(창덕궁관리소)</li> <li>○ 사업내용 : 호우피해 긴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현황 : 회화나무 1주 넘어짐('14.7.24.)</li> <li>- 피해원인 : 우천으로 인한 지반약화 및 노거수 수세약화</li> <li>- 조치내용 : 회화나무 세우고 지지대설치 및 생육환경 개선, 회화나무 4주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14.7.25.)</li> </ul> </li> </ul>	<긴급>
	천연기념물 제521호 웅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경북대학교)</li> <li>○ 신청사항 : 무궁화 시료 채취(가지 20cm, 잎 2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자생 무궁화 유전자원을 이용한 키 낮은 무궁화 신품종 육성 및 분화용 무궁화 품종의 보급·수출</li> </ul> </li> <li>○ 불허사유 : 신청사항은 상업적 이용의 우려가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li> </ul>	<불허>
	천연기념물 제164호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창원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번지</li> <li>- 사업내용 :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벽(5m*2m), 낙석방지책(35m*2.7), 도복 위험목 1주 제거</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7. ~ 2014.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김해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하수관거 정비 사업</li> <li>-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번지</li> <li>-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아래 하수관거 설치</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7. ~ 2015.12.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경북대학교)</li> <li>○ 신청사항 : 무궁화 시료 채취(가지 20cm, 잎 2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자생 무궁화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li> </ul>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지 20cm, 잎 20개체 채취</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7.21. ~ 2014.12.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물의 우리청 공유 및 타기관등 요청시 자료제공</li> <li>-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포항국토관리소장</li> <li>○ 허가사항 : 국도36호선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내11지구 : 낙석방지울타리 22경간(L=44m, H=2.5m)</li> <li>- 대흥14지구 : 낙석방지망 A=271.0m<sup>2</sup>, 슛크리트 V=71.0m<sup>3</sup></li> <li>- 하원7지구 : 절토사면 녹화(유망)T=7cm L=22.0m, A=360.0m<sup>2</sup></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6-23 ~ 2014-12-31</li> </ul>	<허가>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 지리산 남부 치유탐방로(화엄사~연기암)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로 정비 : 5.9km</li> <li>(화엄사~연기암 구간 3.9km / 자연관찰로 2.0k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6-29 ~ 2015-12-30</li> </ul>	<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지원대</li> <li>○ 허가사항 : 폐수처리시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규모 : 지상 1층 - 건축최고높이 :3.4m</li> <li>- 구조 : 경량철골조</li> <li>- 건축면적 : 28.38m<sup>2</sup> - 연 면 적 : 28.38m<sup>2</sup></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7-10 ~ 2014-10-31</li> </ul>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li> <li>○ 허가사항 : 자구리 공원내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 CCTV 지주 1식</li> <li>- 건축 높이 : 8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7-10 ~ 2014-10-31</li> </ul>	<허가>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 외돌개 진입로 포장 보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로 포장 복구 L=70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7-10 ~ 2014-09-30.</li> </ul>	<허가>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사업내용 : 정자 4동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뽕뽕다리”로 진입하는 도로 변에 있는 “뽕뽕다리 쉼터”라는 가게의 옆 마당에 원두막 형태의 정자 4개를 설치</li> <li>- 1형(가로 2m, 세로2m) 3개</li> <li>- 2형(가로 6m, 세로3m) 1개</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7-17 ~ 2014-08-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사업내용 : 관광농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부지(19,506㎡) : 영농체험시설(16,143), 편의시설(320), 기반시설(1,540)</li> <li>- 건축면적/연면적 : 32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66㎡, 관리실 127㎡, 숙박시설 127㎡</li> </ul> </li> <li>- 규모/최고높이(m) : 지상1층 3동 / 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4-07-17 ~ 2017-03-31.</li> </ul>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서귀포시청(관광지관리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지연 난대림 내 상가 및 관리사무소 증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666-1</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지연 상가 : (기존) 444.18㎡ → (증축) 537.18㎡</li> <li>*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li> <li>· 관리 사무소 : (기존) 165.8㎡ → (증축) 192.87㎡</li> </ul> </li> </ul> </li> </ul> <p style="margin-left: 20px;">&lt;변경허가 사항&gt;</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5%;">변경 전</th> <th style="width: 35%;">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천지연 상가</td> <td>(연면적) 537.18㎡</td> <td>(연면적) 563.22㎡</td> </tr> <tr> <td>건축물</td> <td>(구조) 조적조</td> <td>(구조) 경량철골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13.2.18. ~ 2014.12.31.</li> </ul>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천지연 상가	(연면적) 537.18㎡	(연면적) 563.22㎡	건축물	(구조) 조적조	(구조) 경량철골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천지연 상가	(연면적) 537.18㎡	(연면적) 563.22㎡										
건축물	(구조) 조적조	(구조) 경량철골조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강릉국토관리사무소</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위험도로 개선</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li> <li>- 사업내용 : 국도 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도로 확장(R12→R40), 옹벽 100m 1개소 설치</li> <li>· 토공 : 깎기 2,873㎡, 쌓기 6,104㎡, 순성토 3,231㎡</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벽설치 등으로 인한 인공구조물이 노출되지 않고, 절토에 의해 식생 등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보완</li> <li>- 설계 및 시공 시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li> </ul> </li> </ul> <p style="margin-left: 20px;">&lt;변경허가 사항&gt; 허가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013.9.16~2014.6.30 → (변경) 2013.9.16~2015.9.30.</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영천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하수처리장 설치 등</li> <li>-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번지 1호</li> <li>-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설치 등</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절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굴착시 유의 시공</li> <li>- 하수처리장 주변 조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li> </ul> </li> </ul> <p>&lt;변경허가 사항&gt; 허가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013.11.25~2014.6.30 → (변경) 2013.11.25~2014.12.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낙동강관리본부장</li> <li>○ 허가사항 : 부산시 강서구 삼락생태공원 잔디 및 물억새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디(A= 188,000㎡)</li> <li>- 물억새(A= 12,000㎡)</li> </ul> </li> <li>-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li> <li>○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4.4.10~2014.10.30</li> <li>○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 버섯재배사 신축 현상변경 허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956㎡</li> <li>- 시설규모(경량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재배사 : 4동(1층, 148㎡~247㎡), 관리사 1동(1층, 148㎡)</li> </ul> </li> </ul> </li> <li>- 사업위치: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li> <li>○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3.12.23~2014.10.30</li> <li>○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 자유로 휴게시설 설치공사 현상변경 허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면적 : 4,906㎡</li> <li>- 시설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방음 휀스 : 214m / 옹벽(H 3.5m~5.0m) : 238m</li> <li>· 대형주차장 6면(3.25×14.0m), 일반주차장 29면(2.5m×5.0m)</li> <li>· 가드레일 : 504m</li> </ul> </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식재 : 왕벚나무(9주), 산철쭉(24주), 영산홍(24주)</li> <li>· 이동식 화장실 : 1개소(L13×W3.5×H3.5m)</li> <li>· 관리사무소 : 1개소(L9.0×W3.0×H2.65m)</li> <li>· CCTV : 2개소</li> <li>-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번지 일원</li> <li>○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3.11.7~2014.12.31</li> <li>○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li> <li>○ 조건부허가 : 콘크리트 옹벽은 자연형 사면으로 조성하여 채두루미 도래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치</li> </ul>	
	<p>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봉화군수</li> <li>○ 사업내용 : 닭실-금봉문화마을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공사</li> <li>○ 허가변경사항 : 포장공 및 허가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공 : (당초)아스콘431㎡,투수콘688㎡</li> <li>→(변경)아스콘866㎡,투수콘253㎡</li> <li>- 허가기간 : (당초)2013.7.26~2013.12.31</li> <li>→(변경) 2013.7.26~2014.12.31.</li> </ul> </li> <li>○ 변경사유 : 대형버스 및 일반승합차 등 잦은 진출입으로 투수콘 면이 일어나고 침하되어 미관을 흐리고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어 아스콘으로 변경</li> </ul>	<p>&lt;허가사항 변경허가&gt;</p>